

낸드 ‘깜짝 흑자’… SK하이닉스 ‘깜짝 실적’

제2구하라 없도록 “유류분 제도 위헌”

1분기 영업이익 2.9兆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더불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고부가 메모리의 판매량 증가로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그간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낸드 사업까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12조 4296억 원, 영업이익 2조 8860억 원, 순이익 1조 9170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그간 회사가 거뒀던 1분기 실적 중 최대다.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은 1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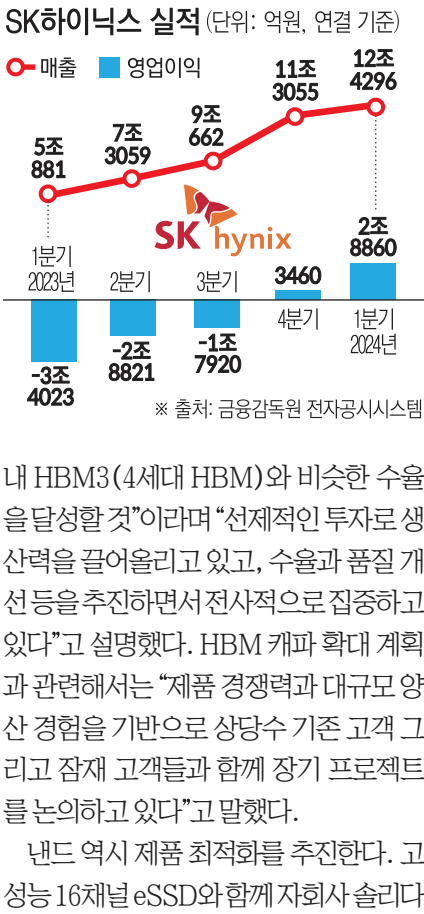
HBM 등 AI 서버용 제품 판매량을 늘리고,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속한 결과 실적

AI發 HBM·낸드 판매비중 확대 매출액 12.4兆 1분기 기준 최대 연내 10나노 5세대 DDR5 출시

최태원 회장, 엔비디아 CEO 회동 HBM·AI 등 협력 확대 방안 논의

개선을 이뤘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낸드 사업은 프리미엄 제품인 엔터프라이즈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eSSD)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 판매단가(ASP)가 상승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는 3월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3E(5세대 HBM) 공급을 늘리고, 10나노미터(nm·10억분의 1m) 5세대(1b) 기반 32Gb(기가비트) 더블 데이터레이트(DDR) 5 제품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3E는) 현재 진척도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임의 퀴드러플레벨(QLC) 기반 고용량 eSSD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2분기에도 우호적인 가격 환경과 고용량 eSSD 제품의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초고용량 SSD 구현을 위해 현재 시장의 메인스트림인 트리플레벨(TLC)보다는 QLC 방식 솔루션이 필요하다. 솔리다임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QLC 솔루션을 통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젠스황 엔비디아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양사 간 AI 동맹을 과시했다. 젠스황 CEO는 최 회장에게 선물한 책자에 “우리의 파트너십과 함께 만들어 나갈 AI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라고 적었다.

최 회장은 젠스황 CEO와의 회동에서 SK하이닉스의 HBM은 물론 SKT의 AI 사업과 관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용 기자 pmw7001@



2024 베이징 국제모터쇼 참가한 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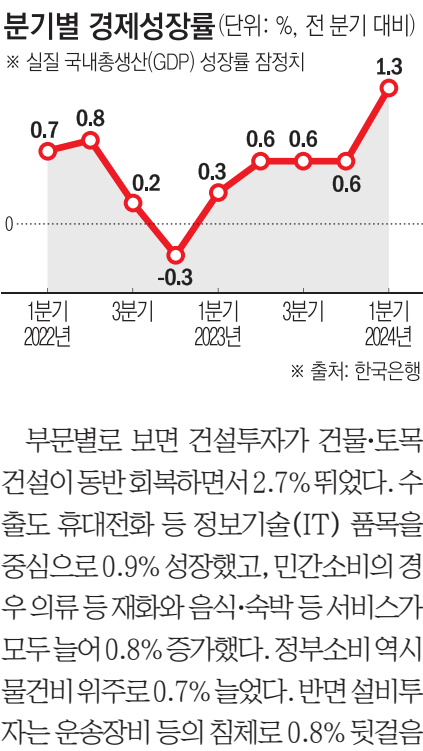
기아가 25일 중국국제전람전시 순의관에서 열린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 참가해 전기차 ‘EV5’·엔트리 SUV ‘쏘넷’을 선보였다. 왼쪽부터 양홍해 기아 중국 COO(부사장), 김경현 부사장, 기종봉 영업 부사장, 고명동 영업 경제기술개발부 주임, 장내문 동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련기사 3·10면

1분기 성장률 1.3%… 2년 3개월 만에 최고

건설투자·수출·소비 호조세 영향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 유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웃돌 가능성도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관련기사 4면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 역성장(-0.3%)을 기록했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쳤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로, 각각 0.6%포인트(p)씩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와 정부소비(0.1%p)도 성장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정부투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운송장비 등을 위주로 제조업도 1.2%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그러나 재배업 등의 위축으로 농림어업은 3.1% 감소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

득(GDI)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1분기 GDP의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한은의 경제전망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상반기 2.2% △하반기 2.0% △연간 2.1%로 각각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상반기 1.1% △하반기 2.0% △연간 1.6%로 전제치를 제시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 국장은 “산업설, 기술적으로 보면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2분기, 4분기 성장 경로도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기존 전망치(2.1%)를 웃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현재 “폐류가족에 상속, 상속 반해 유류분 상실 사유 별도 규정해야”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과거 호주제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 만큼 특정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차별적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들어 유류분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변화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간 이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가지는 부작용이 논란이 됐다.

유류분 규정은 2010년과 2013년에도 헌법소원에 올랐지만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현재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꽃 기자 pgot@

부자 70% '자산 묻고 관망중'

꺼내 쓴다면 ‘부동산’

하나금융경영研 리포트 발간

#50대 전문직 남성 A 씨는 평소 오전 6시에 기상한다.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보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 일정과 생각을 정리한다. 아내와 함께 식사한 뒤 출근 준비를 마치는 게 그의 아침 루틴이다. 주말에는 사업상 친목 도모를 위해 골프도 나가지만 취미인 문화예술 관람과 요리를 더 자주 한다. 가끔적이면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 자산이 20억 원 이상인 그는 지난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예금 비중을 높였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다. 올해는 채권 투자를 늘릴 생각이다. 안전자산인 금도 더 사들일 계획이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 10명 중 7명은 올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

올 경기전망, 작년比 '긍정 개선'
고금리에 예금 등 금융자산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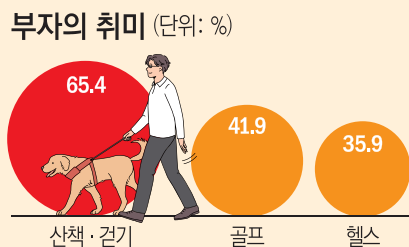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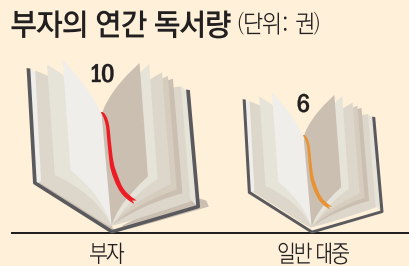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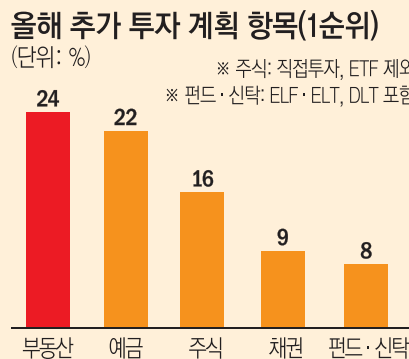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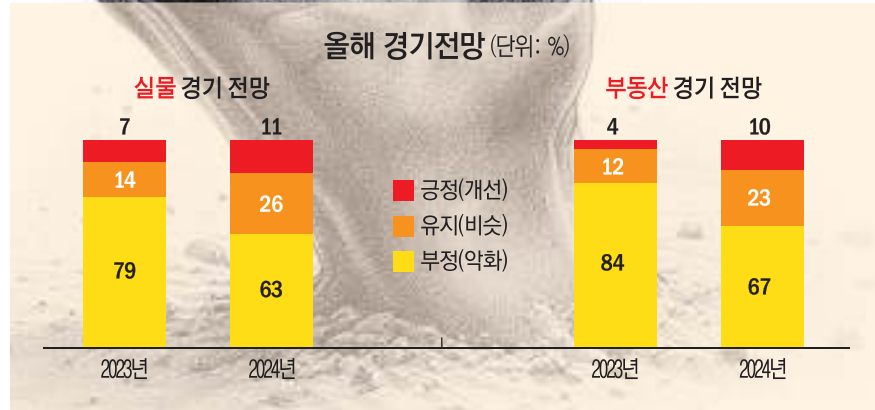
을 금리·환율 점진적 하락 예상
추가투자 1순위로 '부동산' 낙점

평균 수면 7.3시간...독서=휴식
70% '삶에 만족' 일반인의 2배

산1순위로는 부동산을 뽑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다.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 746명, 대우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의 금융행태를 분석한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실물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자 비중이



그래픽 손미경 기자 sssmk@

나와 가장 가까운 NH농협생명 스마트 직영점

**보험 설계에서 가입과 청구까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살률·미세먼지 나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엔 여전히 1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 넘게 늘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이었다.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2위 리투아니아(18.5명)와는 5.6명 차이가났다.

미세먼지(PM2.5) 농도도 높았다. OECD가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한국은 $25.9\mu\text{g}(\text{마이크로그램}\cdot 100\text{만분의 } 1\text{g})/\text{m}^3$ 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20\mu\text{g}/\text{m}^3$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칠레($24.2\mu\text{g}/\text{m}^3$)와 튀르키예($22.6\mu\text{g}/\text{m}^3$)뿐이었다.

2022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 1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8535건)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1만490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만605건), 강간(6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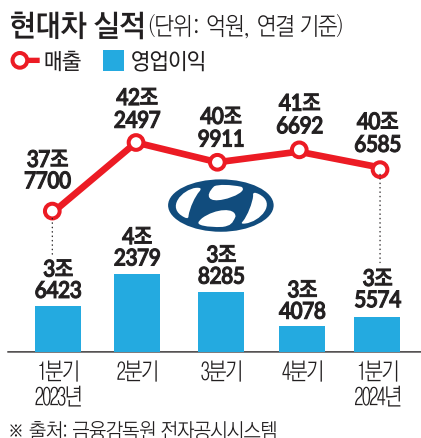
음주율은 반등했다. 지난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월간 음주율)은 2022년 54.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현대차, 1분기 매출 신기록... “전 차종 하이브리드 생산”

고수익 모델 공략 주효

매출 전년比 7.6% 늘어 40.7조
SUV·제네시스·환율, 실적 견인

10월 가동 앞둔 美 전기차 공장
하이브리드 생산시설 추가하고
소형차용 시스템 개발 착수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판매 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비중이 늘어난 데 더해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인센티브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차(HEV)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도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확대해 성장세를 잇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25일 1분기 매출 40조6585억 원, 영업이익 3조55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7%를 기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 “고금리 지속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

적인 판매 성장세에 8%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00만6767대를 판매했다. 국내에서는 아산공장 섰다운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줄어든 15만9967대가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신흥 모델 투입 및 주요 라인업 상품성 개선과 함께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84만6800대가 팔렸다.

친환경차 판매는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15만3519대에 그쳤다. 이 중 전기차는 4만5649대, 하이브리드는 9만7734대였다.

현대차는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하이브리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짓고 있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차 연간 판매 목표도 전년 대비 28% 높은 48만 대 수준으로 설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10월 가동 예정인 HMGMA를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 제조로봇이 차세대 생산방식인 셀 시스템에서 ‘아이오닉5’를 조립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시설 투자할 예정”이라며 “늘어나는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대응해 공장 설비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라인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중형과 대형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는데 소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며 “전 라인업에 하이브리드를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향후 경영환경 전망과 관련,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관련 비용 확대가 미래 경영 활동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신흥국 위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다만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은 중장기적으

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신규하이브리드차 모델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신타페와 투싼 부분변경 모델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생활가전·車전자장비 질주 LG전자도 ‘최대 매출’ 썼다

생활가전 매출 8.6조 역대 1위

LG전자가 주력사업인 생활가전에서 호조를 기록하며 1분기 최대 매출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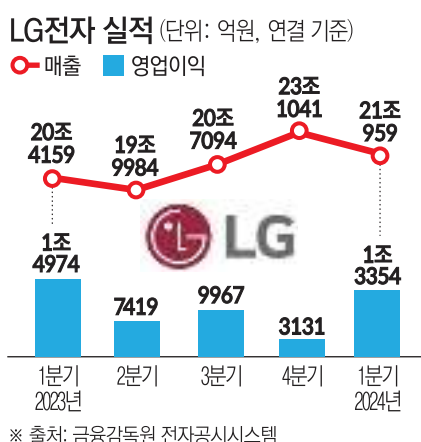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959억 원, 영업이익 1조3354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생활가전 부문이 역대 최대 매출로 기록적인 영업이익률을 거뒀으며, TV와 비즈니스솔루션 사업 부문은 매출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사 매출액은 역대 1분기 가운데 처음으로 확인됐다. 영업이익은 1분기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1조 원을 넘겼다.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 사업본부 1분기 매출액 8조6075억 원, 영업이익 9403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올라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였다. 영업이익률은 10.9%로 나타났다.

VS(Vehicle component Solutions) 사업본부 1분기 매출액 2조6619억 원, 영업이익 52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올랐다.

최근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다소 둔화



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관련해 LG전자는 “중장기적으로 20% 성장률을 예상한다”며 “조인트벤처(JV)를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E(Home Entertainment) 사업본부는 1분기 매출액 3조4920억 원, 영업이익 1322억 원을 기록했다. 주력 시장 가운데 하나인 유럽의 TV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BS(Business Solutions) 사업본부는 1분기 매출액 1조5755억 원, 영업이익 128억 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민간주도로 탄탄한 회복세… AMRO “韓 올해 2.3%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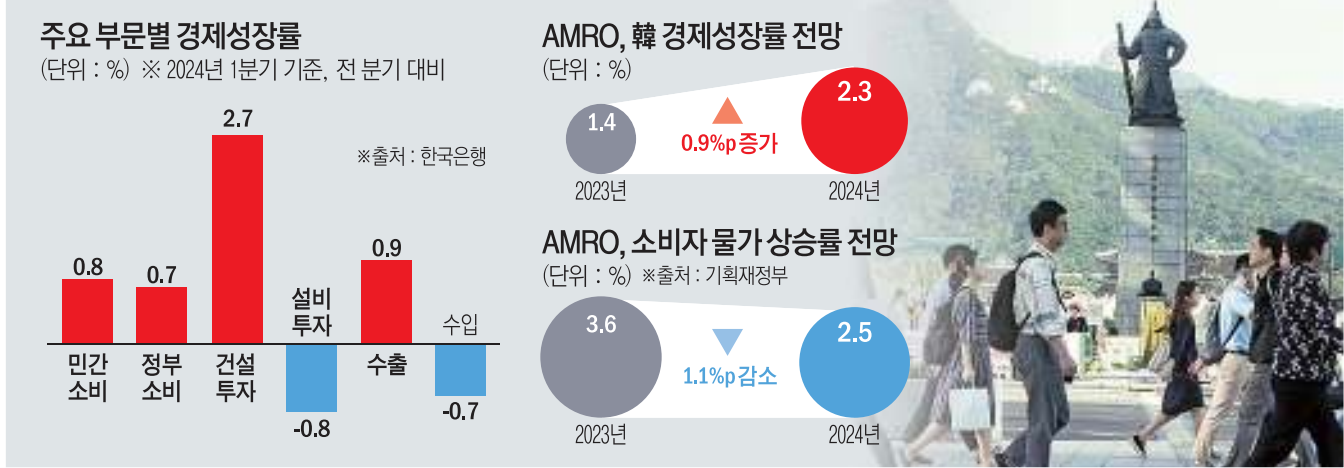
韓 1분기 경제성장을 1.3%

글로벌 IB 0.5~0.7% 예상했지만
재정 의존 덜고 ‘수출-내수 균형’
한은 “추후 상향조정 가능성 ↑”
AMRO, 국내외 전망치 웃돌아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 보치’에 대해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분기 성장률 1.3%는 시장 전망치를 2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0.5~0.7% 정도로 예상해왔다.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는 설비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선전했다.

특히 민간 소비 반등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고질적인 내수 부진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보였다는 점에서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4%포인트(p)였으나, 올해 1분기 0.7%p로 플러스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집계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100선을 웃돌고 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같은 날 “수출은 확실히 예상보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수가 어떨지는 좀 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내수 회복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 2.2%, 하반기 2.0%로, 연간으로는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1.4%)보다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1.1%p 하락한 2.5%로 예측했다.

AMRO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

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AMRO는 이달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한 바 있다. 2.3% 전망치는 정부(2.2%), 한국은행(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와 한국개발연구원(KDI·2.2%) 전망치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2.3%)과 같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2023년(3.6%)보다 1.1%p 하락한 2.5%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한국 경제의 단기 위험 요인으로 고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 부채 증가 등으로 지적했다. 통화·재정 정책 권고도 제시했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0%)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印尼 금리인상… ‘亞 환율방어’ 트리거 되나

인도네시아가 2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사상 최고치로 깜짝 인상했다. 킥달라에 따른 루피아화 약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자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자국 통화 약세에 고심이 깊은 가운데 이를 신호탄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방어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 후 기준금리로 쓰이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연 6.00%에서 6.25%로 0.25%포인트(p) 올렸다.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의 인상이며 2016년 7일물 역RP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은 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는 동결을 점친 시장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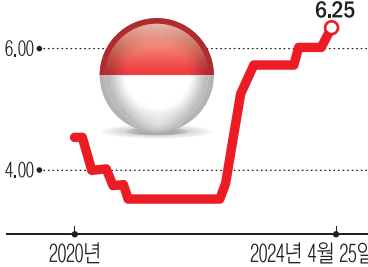
페리 와르지오 BI 총재는 “미 달러의 부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예측적이고 전향적이며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I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연 1.5~3.5% 범위 내였지만, 최근 루피아화 약세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이달 들어 미국 달러화 대비 루피아화 가치는 1.9% 하락,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식량과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루피아화 약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위험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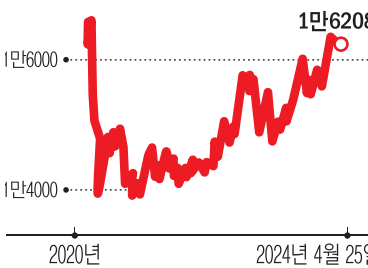
6.0%→6.25% ‘깜짝인상’

美 인하 기대↓…도로 킥달라
“물가·환율 안정성 위한 조치”
日·신흥국, 환율개입 가능성 ↑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단위: %, 연 기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 (단위: 달러당 루피아) * 한국시간 오후 2시 기준



와르지오 총재는 “환율이 2분기

에는 달러당 1만6200루피아 부근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3분기에는 평균 1만6000루피아, 4분기에는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으로 평균 1만5800루피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가 이례적으로 환율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통화 가치를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아시

아 국가들도 잇달아 환율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상보다 강한 경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관측이 후퇴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띤 것이 주된 배경이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등으로 인한 중동 지역 학전 우려도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필요할 경우 엔화의 과도한 움직임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3월 17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엔화는 올 들어 약 9% 하락, 주요 10개국 가운데 절하율이 가장 크다.

엔저는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199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55엔을 돌파했다. 이어 25일 155.74엔까지 치솟으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 엔저 부담감에 도쿄증시 닛케이 225지수가 2.16% 급락했다. 이에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15일 2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링깃화 가치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 당국은 외환 트레이더들에게 위안화 가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태국도 당국자들이 통화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개입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의료진 빠진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

“처우·환경개선 논의… 조속한 참여를”

의협·대전협 불참 속 출범

‘필수의료 패키지’ 중장기 과제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 주역으로 참여 바라”
중증의료 보상·의료사고 안전망 추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다. 의협이나 대전협이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현재는 여러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노 위원장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를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회의를 5월 2주차로 계획하고 있다. 이때까지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2차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논의한다고 말했다”며 “(전공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논의될 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위촉을 비롯한 특위 구성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전 실장은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20명 중 10명의 의료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위원회 등 대개는 의료계가 3분의 1”이라며 “위원장은 위촉됐고,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아 부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협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육아휴직하면 남은 직원은?... ‘인력난’ 中소, 겁부터 난다

〈글 쓰는 순서〉

- ① 법인세·소득세 파격적 감면
- ② 유연근무제 의무 도입해야
- ③ 남은 동료 확실한 보상 배려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임신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됐다”고 털어놨다.

걱정은 기우였다. 그의 상사는 반갑고 기쁜 목소리로 두 번째 임신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회사는 3개월 남짓이지만 복직했다가 다시 출산휴가를 가도 좋고, 기타 휴직 기간을 줄 테니 안전한 임신기간을 가져도 좋으며 선택권을 줬다”고 말했다.

또 그는 “휴직 기간 인사팀에서 종종 저의 안부를 물었고, 회사의 공지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안내도 해줬다. 그때마다 여전히 회사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소속감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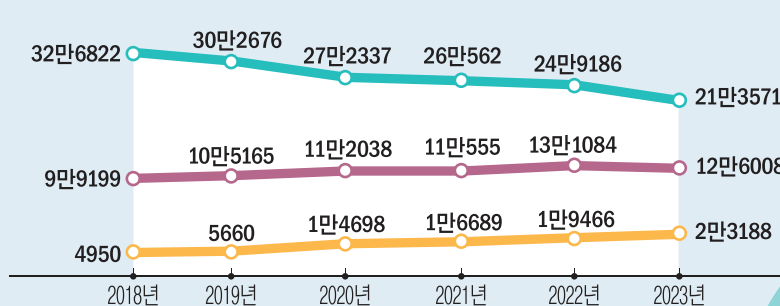
이처럼 일부 기업은 육아휴직 제도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즉 문화가 잘 정착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은 그렇지 않다. 특히 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인력 사정이 여윌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육아휴직을 간다고 하면 겁부터 나는 것이다.

이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와 함께 남은 직원들을 위해 ‘동료수당’을 법제화하거나 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휴직자가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남은 직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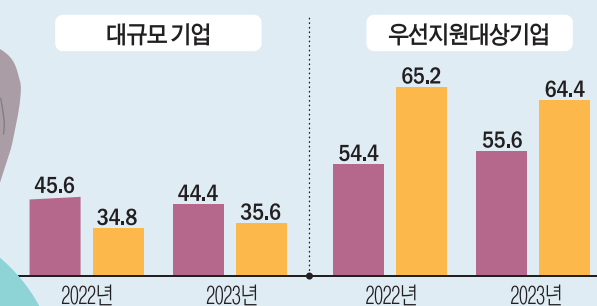
2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 공백 부담, 동료 눈치’ (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단위 : 명) ● 출생아 수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업규모별·제도별 사용 비중 (단위 :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내용

- 육아기 단축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 확대

-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
- 사용 대상 자녀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
-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

※출처 : 고용노동부

‘팀·부서 기존인력으로 해결’ 51% 1위 근로자 25.6%는 업무공백 부담 등 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지 못해

업무분담 근로자 ‘동료수당’ 법제화 필요 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 파격 부여해야 휴직자도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하반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등 실시 사업주에 최대 월20만원까지 지급 계획

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대체 인력의 계속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인원 채용 시 직접 인건비 외에 세액감면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그나마 부담이 덜어질 거고,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인력을 즉시 뽑아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문제는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자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인 국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런 조사에 기반을 뒤 차근차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지원을 제도화해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정유정 기자 oiljung@

‘출산 장려문화’ 모범적인 기업 사례 보니

‘가족친화경영 전략’이 기업 성장의 길... “출산 바라보는 인식 변해야 산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요. 다시 올 수 없을 지 금인데, 너무 미래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이들과 놀 수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인가 싶겠더라 고요.”

‘육아휴직 쓰고 제주로 왔습니다’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근무 중인 이희성 작가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사실 국가와 시민이 모두 윈윈 하는 것이다. 국가는 존속할 수 있고 시민은 자신의 행복을 후세에 남겨줄 수 있고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정책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움직이는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결국 돈으로 도구를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사회가 인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진정한 답”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여전히 주류는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육아로 힘들어하는 사람조차 ‘내가 가정에 조금 소홀하더라도 직장에서 헌신하면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육아휴직자들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역시 결국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헌신했느냐로 승진과 보수를 결정하다 보니 눈치를 보고 쓰지 않는 사람들이 주류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주류를 바꿔야 한다. 이 정도의 도약적 변화가 필요

대학내일, 직원 ‘일·육아 병행 이야기’ 공유 동료직원 응원 ‘아이레터’ 작년부터 시행 ‘육아휴직, 특혜 아니다’ 인식 널리 퍼져야

하다. 육아휴직을 안 쓰면 오히려 해고 사유가 된다 든가 승진에서 탈락한다든가 이 정도의 제도가 필요 하다”고 제언했다.

이 작가의 말처럼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인식·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내일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의 육아 이야기를 공유해 동료의 응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아이레터’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대학내일 관계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들이 그 경험담을 팀원들에게 알리는 플랫폼이다. 휴직 기간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팀원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이 성장을 발판으로 앞으로 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쓰는데, 이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육아하는 직원과 하지 않는 직원의 인식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아이레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대학내일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시민에 ‘윈윈’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적극 발굴·홍보하고 실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등 조성 노력”

세종시에 있는 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정모(35) 씨는 “건강한 무심함”을 강조했다. 정 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했을 때, 휴직 기간의 일들을 과도하게 물어보는 동료들이 부담스러웠다. 질문들은 대개 “부럽다”, “일과 육아 중에 뭐가 힘들어?”, “불안하진 않았어?” 등으로 수렴했다.

그는 “다시 열심히 잘해 보자”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다. 육아휴직을 쓴 게 특혜가 아닌 그냥 월급처럼 누구나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아무도 질투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여쭙면 배려 차원의 건강한 무심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직원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나가면, 필요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동화 전략으로 돌리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유럽 기업들처럼 육아휴직, 그러니까 가족친화경영 자체를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 전략 내지는 생존 전략으로써

가족친화경영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며 “결국 기업이 가족친화 전략을 선택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기업 생태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가 육아휴직 자체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한국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이어 그는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직원들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이 관리 비용도 덜 들고, 축적된 전문 지식을 활용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향해 ‘인구부’로 확대·개편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 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관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도 일·생활 균형과 육아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실효적인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주 기자 ssp@·정유정 기자 oiljung@

〈경기도 포기당〉 〈40대 포기당〉

“尹 달라져야” “경포당·사포당”… ‘일침’ 제대로 맞은 국힘



윤재옥(맨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與 '22대 총선 분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선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포당(경기도 포기당)·사포당(40대 포기당) 등 쓴소리도 쏟아졌다.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태도가 싫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장은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제가

“이재명·조국 문제없다고 생각 안해 대통령·여당에 대한 불신이 패인”

“경기에선 광역단체장도 연전연패” “김남국 코인 논란에도 40대 외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 싫다’고 말하더라”라고 총선 당시 느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민생경제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경제수석이나 정부 경제관료들이 나와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과값, 대파값이 오르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 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장은 “PI(최고경영자 이미지·President Identity)도 완전히 망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2년간, 속된 말로 망했다, 하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용산에서 누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 하면 방송에 ‘대통령 격노’라는 표현이나 온다”며 “대통령이 격노한다면 보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좋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전략도 오판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하나도 안 먹었다. 당신들(정부 여당)도 심판을

안 받았지 않냐는 분위기가 널리 팽배해 있었다. 정말 공허하게 들렸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당시 내세웠던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分道) 동시 추진’을 언급하며 “서울 편입론, 경기 북도 분도, 특례시 권한 강화는 모두 충돌하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조율이 안 된 발표를 해서 유권자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더라”고 꼬집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경기도 포기당)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선 연전연패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소장은 “40대도 포기한 정당”이라며 “직장 갑질, 체불 임금,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페 논란 당시 (40대 표심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힘지’로 불렸던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여론은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선거 중에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 등) 구체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또 “저는 당이 하는 것의 거의 반대로만 했다”며 “이조심판 이야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을 단 한 번도 걸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채상병 특검·이태원·전세사기 등 21대 국회 처리”

巨野 ‘입법 강공’…與 ‘속수무책’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실종된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여론전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밖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여론전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대응하면) 의미가 없다.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냐”며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도 해야 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상황 같다”고 진단했다.

최영호 기자 choiyoungkr@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자동차만 풀체인지?”

이제 운전자보험도 풀체인지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강화되는 교통법규에 맞춰 특약과 보장을 확 넓혀 운전자를 더 든든하게 지킵니다

보장은 더 크게, 특약은 더 넓게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종과실 형사적 책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악질상태에서 운전은 제외
① 자동차사고판결사건(음주·무면허·도주·악질상태)에 대한 변호비용
② 교통사고자판정대인(대인)

[비운전자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① 자동차사고판결사건(음주·무면허·도주·악질상태)에 대한 변호비용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상해사망

[납입면제]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 제외
① 자동차사고판결사건(음주·무면허·도주·악질상태)에 대한 변호비용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상해사망

[보험료 할인]
NH농협금융 ESG캠페인 서약 시 2%
ESG 실천서약·환경과사회문제(ESG) 관련 정보를 갖고 ESG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고객

※ 상품가입 전 직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단 한도가 정하는 기준에 인거, 교통법규의 기입(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배상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배상보상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스몰론자동차사고 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교통법규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 중 사고를 내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금액지급시한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읽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02419호(2023.07.20~2024.07.19)

www.nhfire.co.kr
1644-9000

NH농협손해보험

2024 한국에너지대상 추천(신청) 안내



- 추천 기한

2024년 3월 ~ 20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 포상 대상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일반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유공자(개인·단체)

구 분	포상분야	추천(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 분야 등에서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등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 관련 우수 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 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 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 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산업 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 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 에 기여

- 포상 종류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접수 방법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s://energyaward.energy.or.kr>) 회원가입 후 해당 유공분야 작성 및 온라인제출 (20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접수)
- 문 의 처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 052-920-0302, 0308



金값 된 김값 잡는다… 축구장 3800개 규모 양식장 개발

해수부, 김 수급 안정화 추진

정부가 최근 김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7월부터 김 양식장을 확대하고 5월에도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가격이 폭등한 사과와 배 등 과실류는 생산에 큰 차질이 없어 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마른김 원료)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해 7월부터 2700헥타르(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이는 축구장(0.714ha) 넓이의 3800배에 육박한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3% 정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김 양식장 2000ha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가 규모를 다시 늘려 잡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출·내수 대응 신규 양식장 공고 5월에도 마른김 최대 50% 할인

과실류, 전년보다 개화시기 늦어 사과·배 등 ‘공급 대란’ 없을 듯

“추계해보니 수출 증가를 감안해 2700ha 정도를 개발해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월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해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후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밭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잇바디돌 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



부산 앞바다 김양식장 전경. 뉴시스

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2025년부터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김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물김 생산량은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의 총 1억5000만 속가량 생산돼 전년보다 생산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증가해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른김 소비재료가 상승률은 3월 기준 6.6%로 1월(1.2%)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5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마른김(김밥김 포함)을 의무 할인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한다. 김 가공업체 대상으로 원료 수매자금 지원(이자)은 4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과실류의 경우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늦었고, 냉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사과와 배 등

과수의 개화 시기가 지역별로 지난해 대비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순연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은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 역시 이달 4일 전후부터 꽃이 만개하기 시작해 현재는 인공수분 작업 이후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뤄졌고,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이달 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에 대해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영·유아용품 전시 ‘코베 베이비페어’ 개막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영·유아용품 전시회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자투리농지에 복지·체육시설 들어선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10월 통보 소규모 지역 전국 2만1000ha 추정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의 3헥타르(ha) 미만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를 본격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 수립을 독려하고 10월에 해제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1992년부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ha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 2만 1000ha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여기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권역별로 지자체 농

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6월까지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최상목 “위기대응 역량 강화… 공급망 중추국 도약”

〈경제부총리〉

최상목〈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발(發) 불안요인과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최근 대외 경제여건을 ‘조물

대외경제장관회의

중동분쟁 여파로 시장 변동성 ↑ 인태지역과 대외역량 강화 집중

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분쟁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아침에 저녁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조물려석)하며 공급망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처럼 깨지기 쉬운 상황’(여리박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공급망 구축

과 신뢰의 금융 동맹은 우리 경제를 지켜주는 안전판”이라며 “금융공조에서 한미일 재무장관이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한 진전’을 이룬 것처럼,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해 ‘공급망 중추국’로 발돋

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17일 발효된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위기 때 역내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 부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공급망안정화법’과 관련해선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여건을 개선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위기 때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교섭 역량도 높일 것”이라며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체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유사시 관계부처·기관이 원팀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범정부 플랫폼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고준위 특별법, 미래세대 부담 해소 유일책”

원자력환경공단, 법 제정 촉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 산업협회가 주최한 ‘2024 한국원자력원자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 세션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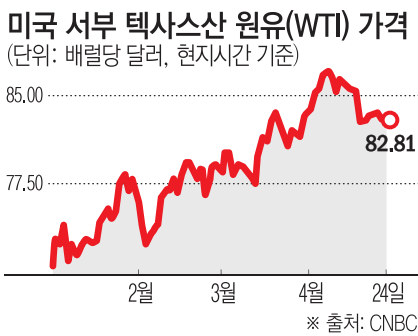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보니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 8900톤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의 출발점을 여야 의원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열마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세계 경제 뒤숭숭한데… 유가하락 점치는 4가지 이유

- ①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 ②우크라이나에 멈춘 러 유전 가동
- ③美 대선 표심몰이용 원유 증산
- ④계절적 요인에 산업수요 감소



올여름 국제유가의 내림세를 점치는 분석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JP모건체이스 분석 등에 따르면 최근 유가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오히려 미국을 시작으로 올여름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양한 배경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앞서 이란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공격을 우려했으나 양국 모두 완전 가능성을 경계해 과잉 대응을 자제하면서 그 가능성이 잦아들었다. 국제유가와 관련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제거된 셈이다.

올해 들어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지속해서 상승했다. 이미 공급이 충분했음에도 주요국의 비축유 확보가 원인이었다. 중동에 대한 불안이 완화하면서 각국의 비축유 경쟁도 약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정유와 송유설비 일부가 기능을 잃었다. 이들 설비 대부분이 개전 2년여 만에 복구되면서 본격적인 공급이 재개됐다.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출 규제와 가격 상한제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인도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를 값싸게 들여오고 있다. 이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면 공급망 분산 효과로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유업체들도 연례 봄철 유지보수를 마치고 가동률을 높여 생산량

을 늘리고 있다.

세 번째, 미국의 정치적 요인도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 인플레이션, 무엇보다 기름값이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셰일유의 대대적인 증산을 용인하거나 장려할 가능성이 크다.

계절적 요인에 산업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유가 하락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IA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국 수요를 시사하는 휘발유 제품 공급량이 지난주 하루 840만 배럴로, 일주일 전의 870만 배럴에서 줄었다.

미국 유류가격 분석기업인 개스버디닷컴의 패트릭 한 애널리스트는 “내달 29일 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몇 주 동안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여름 유가 하락에 대한 전망은 투자업계에서도 일찌감치 시작했다. 주요 투자자들은 4월 셋째 주부터 유가 하락을 가정사실로 여기며 투자 빈도를 줄였다. 로이터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자업체들은 17일까지 7거래일 동안 500만 배럴에 달하는 미국 휘발유 선물과 옵션을 매도했다”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베팅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中 방문한 블링컨 미국무 “양국, 이견 관리할 의무 있다” 10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천치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이견을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서기도 “우리가 협력을 선택하느냐 대립을 선택하느냐가 인류의 미래 안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예상된다. 상하이(중국)/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에 줄 서는 세계… “韓, 로비회사 활용”

英·日·사우디·헝가리·폴란드 등 바이든 자국 위험 감수하고 접촉

세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맹국들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접촉 고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는 달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대비를 해놓겠다는 전략이다.

일부 외국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자극할 위험에도 트럼프와 직접 접촉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회화를 했으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몇 주 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도 이달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뉴욕/AP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얼굴을 요직에 발탁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멕시코 집권 여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트럼프 전 정권 때 자국 외교장관을 지낸 마르첼로 에드파드를 차기 외교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직 총리의 골프 회동 때 통역을 맡았던 다카오 스나오를 중용하는 방안을 고

려하고 있다. 또 아소다로 전 총리는 전날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정권 때 고을 관세로 자동차 산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주 차원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층과 다리를 놓으면서 당 관계자들에게 독일이 미국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우회 외교’를 이끄는 마이클 게오르크 링크 독일 대서양 횡단 협력 조정관은 민주당 관계자들도 만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반면 한국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은 로비회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을 ‘은밀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 정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무역과 투자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견해를 이해하고자 하는 한국인들로 붐비고 있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TSMC “2026년 1.6나노칩 생산”

미세공정 주도권 놓고 갑작 발표 삼성, 2027년 1.4나노 생산 계획 인텔, 연말부터 1.8나노 양산 착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가 2026년 하반기 1.6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껏 별다른 예고가 없었던 것은 물론 삼성전자에도 없는 미세 공정 기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25일 일본 닛케이아시아(닛케이)에 따르면 TSMC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열린 ‘북미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인 1.6나노의 ‘A16’이 2026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간다”며 “로직 칩의 밀도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웨이퍼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실리콘을 사용해 인공지능(AI)에 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술 세트를 고객에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16 기술은 나노시트 트랜지스터로

칩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전력을 공급하는 대신 아래에서 위로 전력을 공급해 복잡한 내부 배선을 피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만큼 AI 칩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세공정 주도권을 놓고 TSMC와 삼성전자, 미국 인텔의 삼파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TSMC는 그동안 2025년 2나노 칩을, 2027년 1.4나노 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새롭게 1.6나노를 추가한 것이다.

삼성 2나노와 1.4나노 공정 계획은 있지만, 아직 1.6나노는 없다. 삼성은 2027년 1.4나노 칩 생산이 목표다.

한편 인텔은 지난해 반도체 업체 중 최초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공개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해 2나노와 1.8나노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전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데, 인텔은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인텔은 올해 초 “1.4나노 칩을 몇 년 안에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경제 전문가들 中 성장률 전망 상향

올해 4.8%로 정부 목표 5% 근접 부동산 침체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아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부동산과 디플레이션 등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 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제시됐다. 지난달 4.6%에서 높아진 것으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 안팎’에도

더 가까워졌다.

전망치 상향은 연초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경제는 공산품에 대한 해외 수요와 당국의 첨단기술 개발 추진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강력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반등 대부분은 1월과 2월에 집중됐다. 춘제(설)가 지나고 3월 중국 경제는 소비 모멘텀 약화와 부동산 침체 심화로 인해 다시 주춤했다.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응답자 중 9명은 부동산 침체를, 4명은 디플레이션과 내수 부진을 올해 중국

성장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0.8%에서 0.6%로 낮췄고,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률 전망치는 종전의 두 배인 0.6%로 높였다.

화바오트러스트의 니에웬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과 제조·판매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전체 수요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시장 유동성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특별 지방채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춘 총 5조 9000억 위안(약 1118조 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 심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아시아나 화물 본입찰... 제주항공 빠진 ‘LCC 3파전’

아시아나항공화물사업을위한인수전 본입찰에 저비용항공사(LCC) 3곳이 참여했다. 당초 강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되던 제주항공은 이번 본입찰에 불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 UBS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결과 LCC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 총 3곳이 본입찰에 참여했다.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은 2시 이전에 입찰을 마쳤으며 에어프레미아는 매각 측인 아시아나항공 측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측 등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감 시간을

조금 넘긴 3시경 입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모두 지난 2월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실제 매각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왔다.

매각 측과 UBS는 LCC 3사가 제출한 최종 인수 희망 금액, 자금 마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그룹인 애경그룹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되던 제주항공은 이번 본입찰에 불참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 예비입찰에는 참여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인수 후 성과에 대한

에어프레미아·이스타·에어인천

예비입찰 숏리스트 중 3사 참여

매각가 3000억~5000억 논의

희망금액·자금계획 등 검토해

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불확실성, 기존 여객 사업과의 시너지 등 제한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사업의 투자 가치, 인수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실사 결과 여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속력 있는 인수 제안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안을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인수전에 불참하며 본입찰은 모두 사모펀드(PEF)를 지배주주로 둔 항공사 간 인수전이 펼쳐지게 됐다.

이스타항공(VIG파트너스), 에어프레미아는(JC파트너스), 에어인천(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는 사모펀드와 재무적투자자(FI) 등의 지원을 받아 인수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사 모두 재무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자금조달 계획이 인수전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매각액이 시장 예상보다 줄어들며 인수 과정이 보다 원활해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매각액

을 5000억 원~7000억 원 수준으로 봤다. 반면 현재 논의되는 매각가격은 3000억 원~50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업부 기업가치에서 기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보유한 은행 차입금 및 금융리스 약 15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금마련 계획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FSC)인 만큼 중장거리 노선(화물 포함)에 대한 운영 경험이나 전문성도 주요 평가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LCC 대부분이 중단거리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재 기자 2mj@

한화에어로, 폴란드 新정부와 2.3兆 수출 계약

천무 72대·유도탄 2종 공급기로

11월말 금융계약 체결해야 효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폴란드와 맺은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의 순차적인 실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신(新)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업체가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 맺는 첫 번째 계약으로 방산 협력을 위한

신뢰를 확인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약 2조2526억원(16억4400만 달러) 규모의 ‘2차 실행 계약(Executive Contract)’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의 지원으로 올해 11월말까지 별도의 금융계약이 이뤄져야 발효된다.

이날 경남 창원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열린 체결식에서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아르투르 쿠피넬 폴란드 군비청장이 서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1차 실행계약(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대) 외에 2차 계약 물량으로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를 확보했다. 단, 2차 실행계약은 각각 올해 6월과 11월까지 당국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리 정부와 폴란드 신정부와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금융 지원을 전제로 이번 2차 계약이 이뤄졌다”며 “폴란드의 안보에 기여하고 방산이 양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손재일(왼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아르투르 쿠피넬 폴란드 군비청장이 천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에 활용된 차량과 로봇개 '스팟(SPOT)'의 모습. 사진제공 기아

“로봇개 ‘스팟’이 문까지 택배” 기아·CJ대한통운 배송 실증

PBV+로보틱스 ‘라스트 마일’ 시험

기아·CJ대한통운이 목적기반차량(PBV)과 로보틱스를 연계한 라스트마일>Last Mile) 배송 로봇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디하이프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했다. 17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덕양구 소재 ‘힐스테이트 라피아도 삼삼’ 거주민들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로보틱스 기술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PBV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아는 CJ 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연계해 택배 기사가 스팟과 함께 물품을 배송하도록 했다. 택배 기사가 봉고EV 차량에 스팟과 배송 물품을 싣고 배송지 인근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스팟과 배송 물품을 하차시키면 스팟이 적재함에 배송 물품을 싣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차량으로 복귀, 추가 배송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번 실증 사업에 쓰인 스팟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첨단 로봇 기술에 디하이프의 로보파일럿(Robopilot) 플랫폼 기능이 더해졌다.

양사는 로봇배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배송 효율성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아는 실증 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첫 중형 PBV 모델인 ‘PV5’가 출시되면 해당 모델을 활용해 PBV와 로보틱스 기술을 연계한 물류 솔루션의 사업성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기아와 CJ 대한통운은 배송에 특화된 ‘대한통운형 PBV’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제네시스, 베이징 모터쇼서 부분변경 ‘G80 EV’ 첫 공개

고성능 마그마 프로그램 등
803㎡에 총 8대 차량 선보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했다.

제네시스는 25일 개막한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고성능 브랜드 ‘마그마’를 소개했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터쇼에 약 803㎡(242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총 8대의 차량을 선보였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은 제네시스의 첫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으

로, 2021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 상품 경쟁력을 높여 3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

부분변경 모델은 기존 G80 전동화 모델의 역동적이면서 우아한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범퍼, 램프 등 주요 디자인 요소의 디테일을 강화해 세련미를 더욱 끌어올렸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지난 3월 뉴욕 오토쇼에서 처음 공개한 ‘마그마 프로그램’도 이번 모터쇼에 공개했다. 마그마 프로그램은 제네시스의 고성능 영역으로 확장 의지를 담은 신규 프로그램이다.

제네시스는 이날 마그마 프로그램과 함께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 △제네시스 X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GV60 마그마 콘셉트를 선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G80 전동화 마그마 콘셉트는 3월 선보인 GV60 마그마 콘셉트와 더불어 제네시스 마그마 런칭 이후 양산될 고성능 콘셉트 중 하나다. G80 전동화 모델의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을 제네시스만의 방식으로 더욱 대담하고 우아하게 풀어냈다.

이상엽 부사장은 “제네시스 마그마는 중국 고객들의 운전 경험을 보다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새롭게 공개된 아크미 블루(Acme Blue) 컬러는 중국 고객들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네시스만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재 기자 2mj@

정유업계, 1분기 석유제품 수출량 ‘신기록’

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로도 불구하고, 정유업계가 1분기에 수출한 석유제품량이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대한석유협회(KPA)는 1분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1억269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출해 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분기(1억2518만 배럴)에 기록한 최대 수출량을 넘어선 것이다.

통상 1분기 수출량은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7.8% 늘어 올 한해 수출 증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글로벌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유업계가 수출 확대에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리스크 속 전년비 7.8% 성장
정유·휘발유·항공유 등 고부가제품

같은 기간 수출액도 124억1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118억7100만 달러) 대비 4.6% 증가했다. 1분기 원유도입액 195억 달러 중 63.8%를 수출로 회수한 것으로 국가무역수지 개선에 일조했다.

수출액 증가로 석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주요품목 수출액 순위에서도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 수출목표 7000억 불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제품별로는 △정유 41% △휘발유 23% △항공유 17%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수출품목 고

도화를 이뤘다.

항공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1분기 수출물량의 38%가량을 항공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으로 수출했다.

국가별 수출량은 △호주 20% △싱가포르 14% △일본 10% △중국 9% △미국 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출국 중에서는 호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호주는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수출량 비중이 매년 10%, 17%, 20%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우려되지만, 정유업계는 수출국 발굴 및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청년의 꿈 하나증권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청년케어’**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증권 **‘청년케어’**

하나증권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약 20만명의 청년 중에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브랜드240108-0086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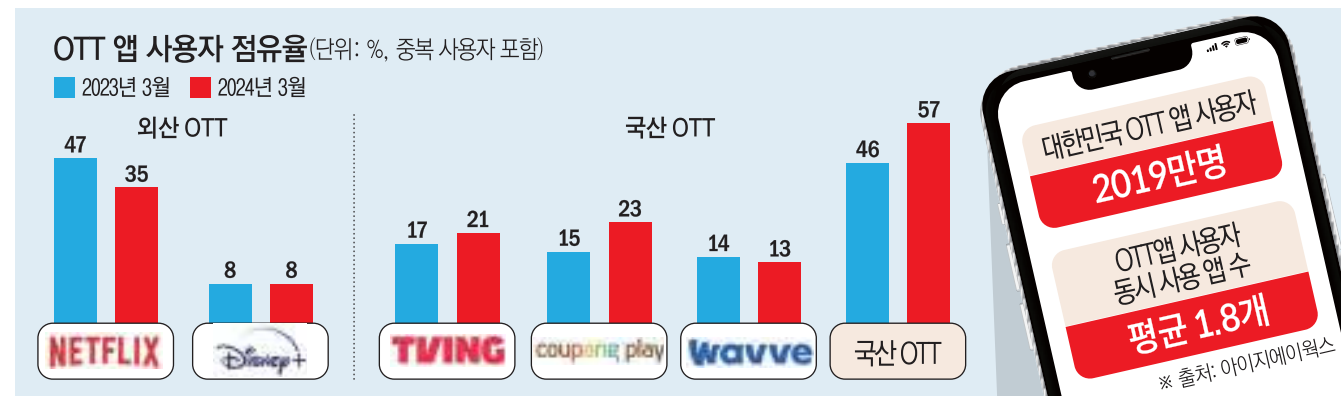
넷플릭스 제친 토종 OTT... ‘스포츠 맛집’ 전략 통했다

지난달 OTT 앱 사용자 점유율
쿠팡·티빙 8%p·4%p씩 늘어...
토종 OTT 점유율 57% 차지
넷플은 12%p 뚫, 35%에 그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용자 점유율이 OTT 공룡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를 추월했다. 거액의 투자금을 베풀며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한 토종 OTT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25일 아이지아이웍스 마케팅클라우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산 OTT 앱 사용자 점유율은 57%로 OTT 공룡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를 합한 수치(43%)를 넘어섰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47%에서 지난달 35%로 대폭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쿠팡플레이와 티빙은 각각 8%p포인트(p), 4%p씩 증가한 23%, 21%를 기록했다. 이는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공을 들인 토



종 OTT가 팬층이 두터운 스포츠 팬덤을 흡수하면서 글로벌 OTT를 추월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플레이는 지난달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을 선보인 데 이어 한국프로축구(K리그) 경기를 온라인에서 독점 중계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단순 중계가 아닌 전례 없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한국에서 직접 제작해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며 “2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일부 스포츠 생중계 경기는 모두 쿠팡플레이가 제작하고 독점으로 스트리밍한 스포츠 경기”라며 스포츠 중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쿠팡은 올여름 김민재 선수 소속 팀 바이에른 뮌헨을 창단 최초로 한국에 초청해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선보일 계획이다. 티빙은 총 1350억 원을 투자해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를 모바일로 독점 중계하면서 야구팬을 대거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최후회 티빙 대표는 중계

권 확보를 통해 연내 월 1000만 트래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티빙은 KBO 리그 외에도 분데스리가(축구), UFC(격투기), 호주오픈, 롤랑 가로스(테니스)도 중계하며 스포츠 팬덤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 대표는 “스포츠는 상당한 팬덤 가지고 있고 콘텐츠로서 가치가 크다. 티빙은 오랫동안 스포츠 콘텐츠에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중계권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며 새로운 스포츠 중계권 확보 가능성

쿠팡, 김민재 소속팀 ‘뮌헨’ 초청
티빙, KBO 독점중계에 1350억
스포츠 중계권 확보 ‘통 큰 베팅’
티빙·웨이브 상반기 합병설 술술

도 열어졌다.

주간 총 사용 시간의 경우 국산 OTT 앱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할 경우 티빙과 웨이브 앱 총 사용시간은 2368만1047시간으로 넷플릭스(1911만2261시간)보다 약 1.2배 더 많았다. 이러한 분석은 티빙과 웨이브간 합병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할 경우 넷플릭스를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해석된다.

당초 양사 합병 협상은 복잡한 주주 구성 탓에 난항을 겪으며 합병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최근에 다시 힘을 받으며 상반기 내에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나리 기자 nari34@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조)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NH투자증권

좋은 제품 싸게 사고, 中企·소상공인 살리고

5월엔 ‘살맛나는 행복쇼핑’하세요

중기부, 5월 1일~28일 ‘동행축제’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해
농·축·수산물, 중기 제품 판촉행사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몰도 특가전
아마존·티몰 등 글로벌 플랫폼 참여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과 해외, 온·오프라인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슬로건은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아 ‘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로 정했다.

먼저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행사는 △이천 도자기축제(5월 3~6일) △보성 다향대축제(5월 3~7일) △악령시향방문화축제(5월 8~12일) △남원춘향제(5월 10~16일) △괴산빨간맛페스티벌(5월 24~26일)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에서 전개한다.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유명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광장에서 1일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날부터 3일간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포토존, 거리공연, 구매 경품 등)도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총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온·오프라인)플랫폼기업들과 협업해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배달 앱을 통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도 지원한다.

국내에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한류 문화행사인 ‘케이콘재팬(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진행한다.

오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시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투톱’ 엔진 장착한 이랜드이츠, 외식업계 강자 노린다

애슐리·자연별곡 등 외식 브랜드 운영사 이랜드이츠가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본업인 외식 브랜드 확장은 물론 베이커리 고급화 전략으로 수익성을 배가할 방침이다.

25일 이랜드이츠에 따르면 김준수 전 이랜드김스클럽 대표이사가 이랜드이츠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이랜드이츠는 황성운 단독대표 체제에서 황성운·김준수 2인 각자대표 체제가 됐다.

CEO(최고경영자)투톱 체제에서 황대표는 애슐리·자연별곡 등 뷔페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반 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1982년생인 황대표는 2008년 이랜드에 입사해 2014년 이랜드파크 리미니 브랜드장을 맡았고, 2018년에는 이랜드파크 외식BU SHO(인사총괄)과 애슐리 브랜드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21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
김준수, 프랑제리 사업 집중
황성운, 브랜드 전반 총괄
작년 영업이익·매출 급성장
“올해 5000억원 매출 목표”

년 7월 이랜드이츠 대표로 선임된 이후 매장 리뉴얼 등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며 이랜드이츠 실적을 흑자로 돌려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김 신임 대표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 프랑제리 사업 부문을 맡게 된다. 2004년 이랜드에 입사한 김 대표는 이랜드그룹 외식 리미니 브랜드장 및 자연별곡 브랜드장에 이어 이랜드그룹 외식 총괄까지 거친 인물이다.



김준수 신임 대표이사



황성운 대표이사

이랜드이츠는 CEO 투톱 체제에서 올해 5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랜드이츠는 이랜드그룹에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식품 전문기업으로, 2019년 7월 이랜드파크의 외식 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됐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당시 매출은 2320억 원에 머물렀고, 2021년엔 200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회복돼 매출액 2535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3553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은 2020년 638억 원의 영업손실을 극복, 지난해 178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전년 대비 195% 급증한 것. 이같은 호실적은 가성비비를 내세운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 선전 덕분이다. 이랜드이츠는 2020년부터 기존의 애슐리 매장을 프리미엄 모델인 애슐리퀀츠로 전환하면서 80여 종이던 메뉴를 200여 종으로 늘렸고, 2020년 사업을 종료한 스시 뷔페 ‘수사’의 메뉴까지 통합했다. 그 결과 애슐리퀀츠의 매출도 급증했다. 애슐리퀀츠의 지난해 매출은 2360억 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 중 약 62%를 차지했다. 애슐리퀀츠의 전년 매출(1570억 원) 대비 50.3% 증가했다.

점포 수도 증가세다. 애슐리퀀츠는 코로나 사태 당시 100개가 넘는 매장이 50여 개까지 줄었지만, 이달 기준 28개 점포

가 다시 늘며 84 곳으로 늘어났다. 이랜드이츠는 올해 신도시·복합물을 중심으로 애슐리퀀츠 매장을 150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신임 대표가 진두지휘할 프랑제리도 올해 추가 출점을 통해 프리미엄 베이커리 업계의 리딩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고급화 전략의 시험대였던 신촌 피어점과 부산 서면점을 통해 성공을 맞은 만큼 차별화된 프리미엄 공간으로 설계한 대형 매장 출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랜드이츠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외식 및 베이커리 브랜드 매출이 꾸준히 상승 중”이라며 “2인 대표 체제를 통해 애슐리·자연별곡 등 외식 브랜드 확장은 물론 프리미엄 베이커리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CJ올리브영, 홍대에 ‘K뷰티 랜드마크’ 오픈

총 300평(991㎡)으로 올리브영 명동타운(350평, 1157㎡)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매장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컬라보 팝업존’은 컬래버레이션(협업)을 콘셉트로, 매달 새로운 뷰티 브랜드와 영화, 게임, 캐릭터 등 이종산업 콘텐츠의 공동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CJ올리브영이 트렌디한 글로벌 2030세대가 즐겨 찾는 서울 홍대 앞에 오프라인 체험 기능을 강화한 특화매장 ‘올리브영 홍대타운’을 26일 공식 오픈한다. 지상 1~3층, 영업면적 기준

사진제공 CJ올리브영

씩 바꾼 롯데몰 수원점… “유명 맛집 한곳에”

큐레이션 콘텐츠 맞춰 대규모 리뉴얼
복합물 최초 프리미엄 푸드홀 완성

롯데백화점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롯데몰 수원점을 대규모 리뉴얼, 유명 맛집을 잇달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 리뉴얼은 ‘큐레이션 콘텐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3층의 ‘다이닝 에비뉴’는 미식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복합물 최초의 프리미엄 푸드홀이다. 약 5000㎡(1500평), 약 1100석 규모로 유럽풍의 광장형 미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대형 통유리의 채광을 통해 야외를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테라스 존(Terrace Zone)’, 중앙에는 방사 형태로 테이블이 배치된 ‘피아자 존(Piazza Zone)’, 유아 및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어우러진 ‘패밀리 존(Family Zone)’ 등을 갖췄다.

롯데몰 수원점 다이닝 에비뉴는 수원역, 대학가 등을 끼고 있는 수원점 상권의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한식, 양식, 일식, 분식, 디저트 등 전체 26개 식음료(F&B) 중 80% 이상인 총 22개

를 수원 지역 최초 매장들로 구성했다. 30년 전통의 대전 갈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스마일 갈국수’, 한우대창 전골로 유명한 평촌 웨이팅 맛집 ‘호랑이굴’ 등 총 10개 매장은 유통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 밖에도 마라탕 맛집 ‘마르르’, 대한민국 최초의 짜장면인 백년 짜장을 구현한 ‘만다복’, 5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의 밥구르망에 선정된 ‘우육미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맛집들도 대거 유치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최초로 전담 직원이 직접 음식을 고객 테이블로 서빙해주는 ‘테이블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롯데백화점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웨이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푸드홀의 구획별 혼잡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도 처음 도입한다. 미식의 큐레이션 외에도 홈 스타일링에 취향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리빙 큐레이션 테넌트’를 한층 강화한다. 젊은 가족 인구 비중이 높은 수원 상권의 수요를 고려해 ‘가족형 큐레이션’ 테넌트도 확대한다. 문현호 기자 m2h@

롯데홈쇼핑, 스타 쇼호스트 동지현 품었다

‘뷰티 컬렉션’ 론칭… 트렌드 선도

롯데홈쇼핑은 24년차 스타 쇼호스트 동지현의 ‘뷰티 컬렉션’을 고정 편성하고 오는 28일 첫 방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 쇼호스트는 2000년 방송 활동을 시작한 이후 ‘연 매출 4000억’, ‘분당 1억’ 판매 등 수식어가 붙는 명실상부 홈쇼핑 업계 최고의 스타 쇼호스트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연변으로도 화제를 모았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6000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롯데홈쇼핑은 글로벌 K뷰티 상품을 단독 판매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뷰티 상품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스타 쇼호스트를 내세운 뷰티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28일 오전 10시 처음 공개되는 ‘동지현의 뷰티 컬렉션’은 동 쇼호스트가 고객과 소통하며 뷰티 노하우를 전하는 토크쇼 형식이다.

그는 단순 출연이 아닌, 상품 기획, 방송 진행 등을 담당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고정 편성과 주중 추가 1회 편성으로 주 2회 방송된다. 해외 직구로도 구매하기 어려운 에스테틱·식수입 화장품·고기능 뷰티 상품 등을 주로 판매할 예정이다. 문현호 기자 m2h@

캐주얼 입은 아웃백, MZ세대 입맛 잡는다

가족 단위 고객 이미지 벗어나
‘캐주얼 다이닝’ 콘셉트로 변신
신메뉴 4종 선보여… 다양성 박차

국내대표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가 ‘캐주얼 다이닝’으로 변신을 꾀한다. 가족 단위 고객에 국한된 이미지를 벗고 2030세대에게 ‘열린 외식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송호섭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아웃백을 총괄하는 bhc의 새 수장이 된 이후 첫 리포지셔닝(재조정) 전략을 내세운 만큼 그 성과에도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웃백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의한 신규 캠페인 ‘러브 페어링’(LOVE PAIRING - 우리가 사랑한 다이닝)을 공개했다. 캠페인 키워드인 ‘페어링’은 스테이크와 파스타, 샌드위치, 디저트, 와인 등 다양한 메뉴 조합의 즐거움은 물론 공간과 사람, 행복한 순간을 페어링 한다는 뜻이다.

아웃백은 27년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분류됐지만,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을 유치하려는 캐주얼 다이닝 콘셉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 한국 통칭년도	1997년
운영사·대표	bhc·송호섭
시그니처 인기메뉴	투움바 파스타, 토마호크 등
‘캐주얼 다이닝’ 변화 특징점	젊은 층 겨냥 1인 메뉴 출시 및 인테리어 변화

트에 걸맞게 메뉴와 인테리어 등도 바꿀 계획이다.

정필중 아웃백 직영사업본부장(전무)은 “1997년 1호점 이후 27년간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론칭 초기 20대 손님이 지금 중장년층이 됐는데, 다음 20년을 위해 지금 20대 고객분과의 접점 확대가 저희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웃백은 신메뉴도 선보였다. 대표 제품은 △블랙라벨 킹프라운 스테이크 △위커바웃 웰링턴 스테이크 △프레쉬 카펠리니 파스타 △스테이크 샌드위치 등 4종으로, 아웃백만의 색을 유지하되 다양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광중 bhc 연구개발센터 메뉴개발팀 부장은 “아웃백 고유의 브랜드에 최근 트렌드를 가미했다”며 “다

양화한 고객 수요에 맞춰 기존에 없던 안심스테이크와 보다 신선함을 강조한 파스타, 간편한 한 끼를 위한 스테이크를 넣은 샌드위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아웃백은 기존 점포를 백화점·아웃렛 등 복합쇼핑몰로 이전하는 ‘리로케이션’ 전략도 힘을 싣는다. bhc는 2021년 아웃백 인수 후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중심의 출점 전략으로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냈다. 2022년 개점한 리로케이션 4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전보다 평균 70% 증가했다. 지난해 아웃백의 영업이익도 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다. 매출은 약 4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성장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 주4일제 탄력받나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51.88% 득표... 새집행부 꾸려
금융당국 주문 ‘상생금융’ 제동
산은 이전 반대 등 역할 커질 듯
민주당과 적극적 공조 가능성
“현안 산적... 소통·협업 노력을”



윤석구 금융노조 신임 위원장

전 금융권에서 8만 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향후 노동조합 정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금융노조의 입김이 상당히 거세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 지도부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만큼 노사간 갈등도 첨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직 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해 74.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윤 위원장은 현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의 의장으로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도 맡고 있다. 현 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인 신동신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현 금융노조 부위원장인 김명수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새 집행부를 꾸리게 됐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

마하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보궐선거 특성상 당선 즉시 새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고 약 1년 8개월 정도 임기를 이어간다.

윤 위원장 측은 임원 후보들이 노조원 수가 많은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출신들로 구성된 데다 실리 추구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승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내세

왔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6일제 도입, 토요일 원회의 등을 부활시킨 상황에서 금융권의 주4일제 근무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일부 계

열사 임원들이 주6일 근무를 해왔고 최근 삼성생명을 포함한 금융 계열사 임원들도 이에 동참한 바 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공약과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과도한 책임론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주문한 ‘상생금융’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과의 연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전 위원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노사 간 갈등이 이해충돌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에서는 금융권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금융권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노사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jsw@

손보사 매각 ‘활기’에도 생보사는 ‘매물 적체’... 다음 타자는 ‘GA’?

〈법인보험대리점〉

MG·롯데손보 M&A 본격 추진 수익성 저조 생보사 매력도 ‘뚝’ 당장 매출 낼수 있는 GA 관심 커

MG손해보험에 이어 롯데손해보험까지 손해보험사의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생명보험사를 향한 손길은 요원하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로 손보사가 주로 판매하는 장기보험의 수익성은 좋지만 생보사 상품의 매력도는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보험영업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다음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가 최근 롯데손보 인수와 관련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보유 중인 지분 77%를 매각할 예정이다. 희망 가격은 2조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G손보에 예비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JC플라워는 예비실사에 돌입해 회사 사정을 살피고 있다. 매각을 주도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에게 약 5주간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6월 중 본입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손보 인수·합병 시장은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생보업계는 여전

히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다. 잠재매물로 알려진 동양생명이나 ABL생명, KDB생명 등은 아직 매각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는 손보사와 생보사를 향한 니즈의 차이가 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IFRS17에서 손보사가 주로 판매하는 장기보장성보험의 수익성이 저축성상품보다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저축상품의 만기 보험료의 대부분 더 나아가 그 이상을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보장성보험은 사고 발생에 따라 위험을 관리 등에 유리하다. IFRS17에서 이러한 가정이 손익 결정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험사 인수를 고민하는 회사들은 생보사보다 손보사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금융지주사에게 GA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굳이 보험을 제작하는 보험사를 사서 합병이나, 참신한 상품 제작에 열을 올리지 않고도 GA 통해 보험 판매 매출을 당장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적자를 내는 손보사가 있는데 과열된 보험시장에서는 손보사든 생보사든 매입한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오히려 GA를 매입하는 쪽이 더 성과를 내기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화생명은 GA의 세를 불리는 전략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보험상품의 제작과 판매를 분리하는 일명 제판분리를 시행한 뒤 대형 GA인 피플라이프를 사들인 뒤에도 비큐러스 등 중소형 GA 인력을 인수한 바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GA 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거대 금융지주사가 GA를 인수하는 것은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당장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금융지주사의 체면만 아니면 GA 인수 선택지는 고려해볼 만 하다”고 언급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작년 동기대비〉

KB금융 1분기 순익 31%나 ‘뚝’... ‘홍콩ELS’ 악몽이 현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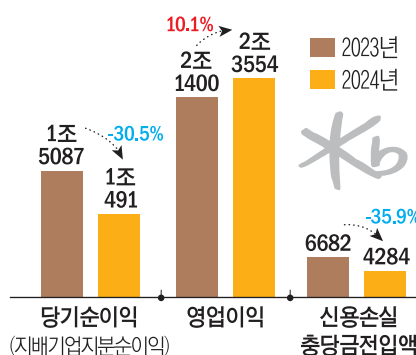
순익 4596억 감소한 1조491억
ELS 배상에 영업외손실 9840억
순이자이익 12% 증가한 3.1조
분기 배당금 주당 784원 결의

KB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무려 8600억 원 가량을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잡은 탓이다. 다만 은행을 제외한 주요계열사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KB금융은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49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5087억 원)보다 30.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1400억 원

KB금융그룹 1분기 경영실적
(단위 : 억원, 전년 동기 대비) ※출처 : KB금융그룹



에서 2조3554억 원으로 10.1% 늘었으나, 영업외손실에서 홍콩H지수 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비용 8620억 원이 회계상 ‘충당부채’로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대규모 ELS 손실 보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 원으로 지난해(1조

5087억 원) 수준을 웃돌았다”면서 “탄탄한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KB금융 이자 수익성은 양호했다. 그룹 순이자이익은 지난해 대비 11.6% 증가한 3조1515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2.11%,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 NIM은 1.87%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각각 3bp, 4bp 상승해 견조한 실적 흐름을 견인했다.

다만비(非)이자이익(1조2605억 원)은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순수수료 이익(9901억 원)은 증권매매 수수료와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8.3% 늘었지만, 시장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관련 실적이 나빠지면서 기타영업이익(2704억 원)이 57.5% 급감했기 때문이다.

KB금융은 신용손실충당금으로 4284억 원을 쌓았다. 이는 작년 1분기(6682억 원)와 직전 분기(1조3782억 원)보다 각 35.9%, 68.9% 줄은 규모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1분기 배당금을 주당 784원으로 결의했다. 현금배당의 가시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결정했다.

새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으로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 시행 △주당 현금배당금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 원 수준, 연간 1조2000억 원 수준) 기준으로 산정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 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DB손보, 이륜차 보험에도 내달부터 ‘긴급출동’ 특약

DB손해보험은 다음달부터 이륜자동차보험 상품에 프리미엄 긴급출동서비스(SOS서비스) 특약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륜자동차보험 프리미엄 SOS서비스 특약은 이륜차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 등의 긴급상황에서 긴급견인 등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5월 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이륜차를 운행하는 고객이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김재은 기자 dov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세 폐지’ 재확인한李… “불법 공매도 이중검증해 근절”

개인투자자 열린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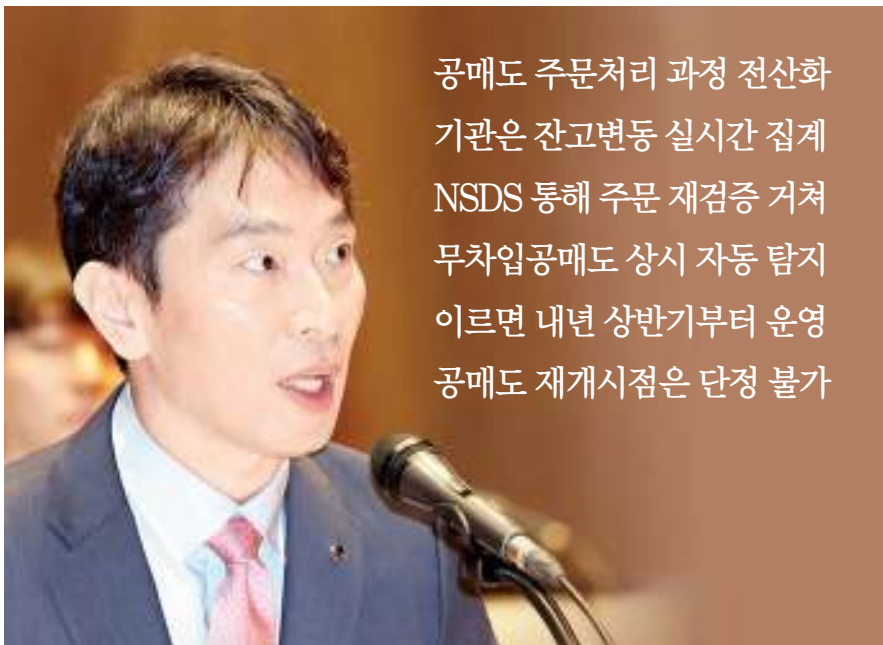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에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으나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를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 본질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공매도 주문처리 과정 전산화 기관은 잔고변동 실시간 집계 NSDS 통해 주문 재검증 거쳐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 공매도 재개시점은 단정 불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공개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빠졌다. 공매도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당국은 공매도 잔고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실시간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은 자동으로 거부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차입이 확정되거나 리콜되면 이를 다시 실시간으로 잔고에 반영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한국거래소에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한 중앙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 가능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예를 들어 A기관이 B사 주식을 50주 갖고 있었는데, 차입 시점 이전에 공매도 주문을 100주 넣었다면 50주만큼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결제일(T+2일) 이내에 확인하게 된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내용은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넘어온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형식은 사후 점검이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백민규 기자 pmk8989@

성수동 ‘N2, NIGHT’ 팝업 가보니

명상·체질관리 다양한 체험… NH證, 민지에 ‘성큼’

‘투자, 문화가 되다’ 슬로건 내걸고 6월 5일까지 디저트·힐링나이트 뜨거운 반응… 긍정적 효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코 끝에 오가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이곳엔 NH투자증권의 네 번째 브랜드 경험 프로젝트인 ‘N2, NIGHT(엔투, 나이트)’ 팝업스토어가 등지를 틀고 있다. ‘N2’는 MZ(밀레니얼+Z세대)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친근하게 부르는 ‘엔투’를 접목한 브랜드 네이밍이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자 웅장한 싱잉볼 소리와 함께 10분 남짓한 명상 시간이 시작됐다. 아파트 10층 높이 크기로 설치된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에서 싱그러운 자연 영상이 나왔다. 서른 명의 사람들은 눈을 감고 힐링의 시간을 즐겼다. 얼핏 요가원 같지만 증권사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의 모습이다.

6월 5일까지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의 첫인상은 발리 우붓을 연상케 했다.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는 높이 6m에 달하는 30여 그루 나무숲이 눈길을 끌었다. 캠핑카와 해먹, 빈백이 곳곳에 놓인 도

심 속 작은 공원을 따라 들어가면 비밀의 입구가 나온다. 내려가면 몽환적 분위기의 공간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N2 TRAY’가 진행된다. 직원인 안내해주는 대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내 체질이 진단되고 이에 맞는 디저트가 제공되는 형식이다. 네 가지 체질 중 ‘사마 도샤’가 나온 기자에게 직원은 사각형 모양의 푸른색 바닐라 무스케이크와 피스타치오 크림이 올라간 초콜릿 라떼를 갖다 줬다.

자신의 체질과 관리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디저트는 성수동 인기 카페 ‘아우프글렛’이 준비한다. 반응은 뜨거웠다. 처음 오픈한 날에 준비한 ‘N2 TRAY’ 디저트 300명분이 1~2시간 안에 금세 모두 동났다.

디저트를 먹고 나면 힐링나이트가 시작된다. 매일 저녁 6~7시, 7시 30분~8시 30분 두 세션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된다. 7명의 명상 테라피 전문가들이 리더 명상, 싱잉볼 명상, 아로마 명상 등을 진행하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녹인다.



서울 성수동에 문연 NH투자증권 팝업스토어 ‘N2, NIGHT’에서 ① 싱잉볼 명상 시간이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제공된 ② 디저트와 ③ 셀 사진제공 NH투자증권·김효숙 기자 ssook@

명상과 디저트, 그리고 샐러드. 건강한 경험이지만 언뜻 보면 ‘투자’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N2’라는 브랜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문화 경험 그 자체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 재구축을 통해 투자가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주는 일상

의 문화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저녁으로 설정한 것도 자기계발(투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시간대라서다. 이곳을 찾은 직장인 김모(30) 씨는 “공간 인테리어부터 체험 프로그램 모두 만족스러웠고 신선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N2, NIGHT’의 팝업스토어는 운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의 공감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탄생했다. 운병은 대표는 “엔투나이트를 통해 차별화된 NH투자증권만의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수익 다각화 나선 부동산 운용사… 공모주 시장 주목

이지스운용, 공모주 사모펀드 판매 부동산 시장 불황에 공모주 투자로

부동산 전문 운용사들이 공모주 시장에 뛰어들며 수익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25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업계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개의 공모주 관련 사모 펀드를 판매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이지스 하이일드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A클래스, C클래스, C-i 클래스 3종의 판매했다. 현재 C-i 클래스에만 110억 원 규모

의 잔액이 남아있다.

올해 2월에는 ‘이지스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판매했다. 해당 펀드 등록잔액은 140억 원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코람 코하이일드 공모주 멀티에셋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9호(채권혼합)’을 신규 설정해 등록잔액 25억 원을 유지 중이다.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은 올해 2월 ‘타이거대체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20호’ 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등록잔액은 200억 원이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 ‘메테우스 공모주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

호’ A, C, C-S 등 3종에 이어 이달 ‘메테우스 공모주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신규 판매했다. 총 등록잔액은 144억 원 규모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수익률이 두드러지는 기업공개(IPO) 시장을 노린 공모주 펀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열심히 했던 운용사들이 최근 PF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일부가 공모주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기관 공모주 투자 플레이어가 늘어나면서 최근 수요예측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분석했다. 백민규 기자 pmk8989@

미래에셋운용, 美투자 ETF 2종 순자산 6兆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총 순자산이 6조 원을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TIGER 미국S&P500ETF’ 순자산은 3조10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초 나스닥100지수 추종 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은 순자산 3조85억 원으로 나타났다.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 2종은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ETF 시장에 S&P500, 나스닥100 등 미국 대표 지수 추종 ETF를 선보인 운용사 중 이들 2종 순

자산 총합 6조 원 돌파는 미래에셋운용이 유일하다.

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운용은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558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총 운용자산은 160조 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137조 원)보다 큰 규모다.

김남호 미래에셋운용 FICC ETF 운용본부 본부장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ETF를 선택할 필요 없이 TIGER ETF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분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택 수, 전체 5~10% 규모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체계

신도시별 최소 2곳·최대 5~6곳
분당의 경우 최대 9000가구

구체 기준 내달 중순 이후 발표

올해와 비슷한 규모 매해 선정

‘주민동의율’ 가장 중요 기준

2027년 첫 착공·2030년 입주

오래된 신도시의 정비를 지원하는 노후 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재개발 패스트트랙’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재건축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게 될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총 정비대상 주택 수의 5~10% 규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선도지구는 매년 최대 2~3만 가구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준은 가구 규모인 만큼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2개에서 많으면 5~6곳도 선정될 수 있다. 그간 국토부가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가져왔던 것에 비해 한층 구체화 된 규모가 이날 공개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기준 1기 신

도시 주택재고는 분당 9만4000가구, 일산 6만9000가구, 이외 지역은 4만 가구다. 1기 신도시 전체는 약 27만3000가구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최대 9000가구, 6000가구 수준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나며 과열경쟁 조짐도 우려되고 있다. 최단장은 “선도지구는 해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선정할 물량과 유사한 규모를 내년에도 선정할 것”이라며 “이주단지 공급계획과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선도지구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세대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불편 정도나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부분에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최종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가점, 감점 평가 항목을 설계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감점 항목에 ‘반대·동의율’을 포함시켰는데 이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5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와 선도 규모와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주단지 공급계획은 선도지구 선정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1기 신도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주단지 증가로 갑작스러운 전세수요 집중으로 전세난, 전세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 단장은 “주변 지역 주택공급 상황을 통해 기존 전세시장에서 얼마나 입주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주단지 계획 규모도 고려하면 전세시장에 큰 불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에는 통합정비 시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선도지구는 2027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최 단장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je@

1분기 전국 땅값 0.43% ↑ ...상승폭은 둔화

4분기 연속 오름세 유지

경기 0.59%로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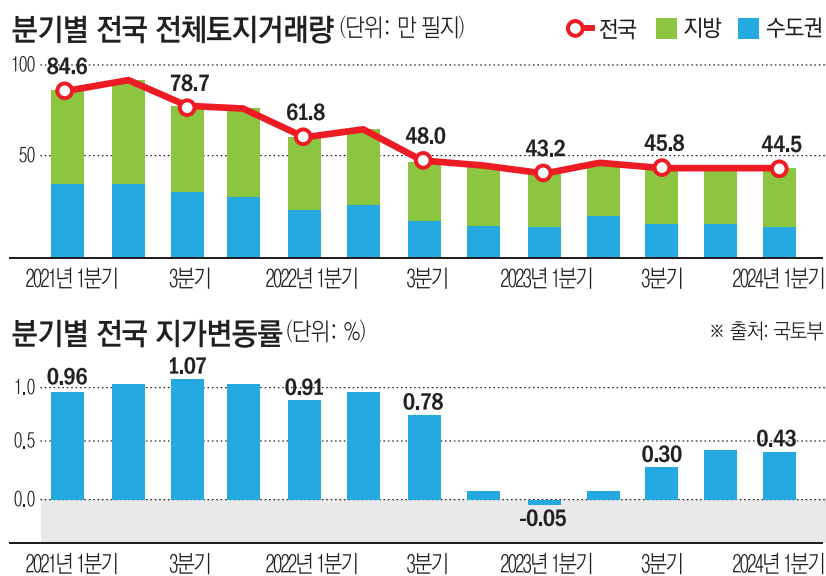
거래량도 0.3% 소폭 늘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오른 전국 땅값은 4분기 연속 상승에 성공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상승 폭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꺾였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0.46%)보다 0.03%포인트(p) 내린 0.43%로 조사됐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지난해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지난해 4분기 0.60%→올해 1분기 0.56%)과 지방(0.24%→0.22%) 모두에서 지난해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1분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0.59%)로 집계됐다. 이어서 서울(0.54%)과 세종



(0.44%), 인천(0.44%)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웃돌았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용인 처인구(1.59%)와 성남 수정구(1.37%), 경북 군위군(1.28%) 등 58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땅값이 올랐다.

토지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1분기 토지거래량은 약 44만 5000필지(311.3km²)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0.3% 증가(1000필지), 지난해 1분기 대비 2.9%

증가(1만3000필지)한 수준이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7만 필지(285.5km²)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7% 감소, 지난해 1분기 대비 8.3%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한 1분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울산 15.6%, 부산 9.3% 등 9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북 10.3%, 전남 9.2%, 충북 7.0%, 세종 6.6% 등 7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주변시세의 60~80% 보증금·임대료

SH,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서울리츠가 소유한 행복주

택 119가구와 예비입주자 185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기준 임대보증금은 3910만~1억 6200만 원, 월 임대료는 16만~66만 2000 원 선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

게 재계약할 수 있다. 이동이 잦은 청년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계약은 자유롭게 허용되며 각각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전년 도시근로자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709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에서 받는다. 다만 인터넷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다음 달 10일 공사 방문 청약이 가능하다.

전보규 기자 jbk@

SK에코플랜트, 디지털 솔루션 통합 브랜드 ‘웨이블’



5개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오픈

SK에코플랜트가 디지털 솔루션의 통합 브랜드인 ‘웨이블(WAYBLE)’을 새롭게 론칭하고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웨이블은 WAY와 ABLE을 합성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전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각각의 디지털 서비스들을 웨이블 하나의 메인 브랜드로 통일했다. 각 서비스들 명칭은 웨이블 뒤에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서브 네이밍을 붙여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재탄생한 웨이블 브랜드는 현재 5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랜드 런칭에 맞춰 홈페이지도 새로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브랜드 소개 메뉴와 각 서비스 홈페이지 이동을 위한 메뉴 두 가지로 구성해 UI(사용자 환경)를 최대한 간결하게 디자인했다. 첫 메인 화면에서 각 서비스들을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세호 SK에코플랜트 플랫폼사업 담당임원은 “웨이블은 자원 순환과 탄소 관리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기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SK에코플랜트가 추구하는 순환경제 비전을 웨이블 서비스로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현대건설, 터널·지하 와이파이 무선 통신으로 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 시스템 HITTS 현장 적용

현대건설이 터널 맞춤형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한다.

25일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지하 터널 무선 통신 기술과 안전 솔루션을 통합한 스마트 안전시스템 HITTS를 구축해 국내외 주요 터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HITTS는 TV 방송용 주파수 대역 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희대역(TVWS)을 활용해 터널·지하 전 구간에 Wi-Fi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TVWS를 활용한 무선 통신 기술은 전파 특성이 우수해 비가시거리와 깊은 지하 구간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 터널 굴진에 따라 이동 설치·운용이 쉬워 △고해상도 고배율 CCTV △IoT 유해 가스 센서 △비상 경광등 및 양방향 스피커 △IoT 기상 센서 △근로자 장비 위치 트래킹 등의 다양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지하 터널에서도 지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다.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HIBoard와 연계해 현장 사무실이나 본사에서 실시간



터널 공사 현장에 설치된 HITTS 장비.

사진제공 현대건설

모니터링·원격관리가 가능해 그동안 통신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터널·지하 공간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HITTS는 다년간의 실증으로 완성한 터널 특화 기술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부모·자식 버리고 ‘암체 상속’ 불가… 47년 만에 法 손질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한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정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유류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권(女權) 신장으로 여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이 사라진 데다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당초 법

유류분 도입 당초 취지와 위배

위헌제정·헌법소원 47건 계류

법률상 가족에 배려 필요 없어

헌재 “권리행사 못하게 법 개선”

취지와 어긋난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그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정을 하는 등 총 14건의 위헌제정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자의 자녀들이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맞서 장학재단이 청구한 사건을 포함해 총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조용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한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유류분권자들 중에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속이 반하는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다.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

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면서 공분이 일었다.

소송 끝에 구 씨가 남긴 재산의 40%는 친모의 몫이 됐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헌재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법률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류분 권리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재 위헌 결정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암체 상속’은 이 사건 소송뿐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온 바 있고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gpark@

대법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 21년만에 변경

기준대로 22일 인정한 원심 파기

“사회·경제구조·통계자료 바뀌어”

보험사 손해배상액 줄어든 듯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많은 부분이 과거

와 달라졌다”며 “월 가동일수 22일의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도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로 더 하향한 셈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20일 초과나 미만의 가동일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 A 씨가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뒤 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시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일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74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김이현 기자 spes@



주말엔 꽃구경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 고양 일산호수공원에 틀림이 심어져 있다. 다음 달 12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30개국 50개 도시 20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해 실내외 화훼전시, 고양플라워그랑프리, 고양국제꽃어워드쇼, 고양국제꽃포럼 등이 열린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국내 1500만명 쓰는 C-커머스, 속은 시커멓다

서울시, 알라·테무 안전성 검사

어린이 제품 절반 ‘부적합’ 판정

유해물질 기준치 380배 초과

“안전성 검사 지속적으로 할 것”

서울시가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유해성 제품 퇴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 어린이 제품 절반에서 기준치를 최대 380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5일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제품 2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의 유해성은 매우 심각했다. 어린이 신발 장식품 7개와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된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3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서울시

며, DEHP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지정돼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보다 33배 이상 많았다. 납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암 발병 가능성도 증가한다. 특히 임신부일 경우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줘 성장 시기 학습과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밖에 어린이용 욕조에서 DEHP가 기준치의 74배, 카드뮴은 6.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모자의 납 함유량은 기준치보다 20배나 많았고, 피크닉의 자에서 검출된 DBP는 무려 기준치의 380배에 달했다. 내구성도 기준 미달로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초저가 전략

으로 한국 진출 약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렸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이용자가 1500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중국 해외직구는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특히 알리와 테무는 지난해 한국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C-커머스’ 유해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자 8일 ‘해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서울시가 상시 검사 체제로 전환한 후 내놓은 첫 검사 결과다. 어린이 날을 앞두고 있어 어린이용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를 고려해 검사 품목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점차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나

시의회 폐지안 오늘 심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조례 폐지안을 26일 심의하기로 하면서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전날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규정 등을 넣는 등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충남 지역에서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례만 폐지하면 교권 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회사 먹여 살리거나 말아먹거나... 마케팅 '명암'

하나금융, 임영웅 모델 발탁하자
주거래 은행 바꾸고 상품가입 쑥

아이유, 주류 최장수 참이슬 간판
우리금융도 '아이유 효과' 톡톡
손흥민 내세운 메가커피 실적 대박

마약 혐의 유아인 광고계서 '손절'
'환승열애설' 한소희 NH농협 하차



왼쪽부터 하나금융그룹 모델 가수 임영웅, 참이슬 모델 가수 아이유, 메가MGC커피 모델 축구선수 손흥민.



사진제공 각사

다양한 기업들이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니다. 기업 전면에 나서는 만큼,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선한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스타는 한정돼 있다. 잘 고른 모델은 회사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 '톱스타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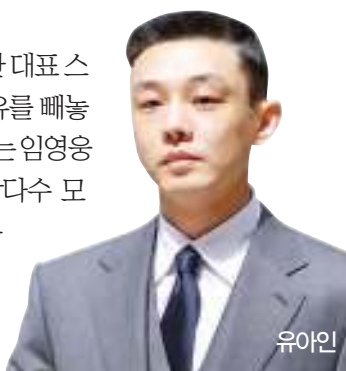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스타는 가수 임영웅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월 임영웅을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임영웅=하나금융'이라는 공식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진심을 전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임영웅의 행보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방향성과 일치했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여기에 하나은행의 '고객 퍼스트(First)' 가치는 그간 임영웅이 자신의 팬들을 향해 보여온 극진한 '팬 사랑'과 일맥상통했다고 덧붙였다.

임영웅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팬들의 후기가 속속 전해졌다. 영업점마다 물량이 한정된 임영웅 관련 사은품을 받기 위해 '오픈런'을 불사하는 팬들도 나왔다.

임영웅이 출연한 하나은행 광고 영상은 최근 1500만 조회 수를 돌파했다.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다. 광고 모델 선정 발표 전 '하나TV'의 구독자 수는 18만 명이었으나 현재 구독자 수는 23만 명 이상이다. 임영웅이 하나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임영웅을 모델로 세운 청정원, 제주삼다수, 정관장도 웃고 있다. 청정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간장 브랜드 '햇살담' 모델 계약을 연장했다. 올해 1분기 햇살담은 간장 판매액은 모델 기용 전인 2022년 동기와 비교해 약 16% 상승했다. 제주삼다수는 임영웅과 함께한 광고 영상 9편의 누적 조회 수가 1200만 회를 돌파했다. 정관장은 임영웅의 모델 발탁을 기념해 친필 메시지가 담긴 포도카드, 브로마이드로 구성된 스페셜 굿즈 세트를 상품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정관장이 기록할 매출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광고 모델로 핫한 대표 스타로는 가수 아이유를 빼놓을 수 없다. 아이유는 임영웅 이전 4년간 제주삼다수 모델로 활동했고, 하이트진로와는 소주 브랜드 참이슬로 주류업계



유아인



한소희

최장수 모델 기록까지 썼다. 아이유는 2014년 하이트진로와 처음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2018년까지 4년간 참이슬 모델로 활동했으며, 2020년 다시 모델로 기용돼 지난달 계약을 연장했다.

금융권에서 스타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은 우리금융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금융은 2022년 아이유와 인연을 맺으면서 성공적인 브랜드 홍보 효과를 누렸다. 아이유의 맑고 선한 이미지를 내세워 그룹 이미지까지 세신했다. 2022년 드러난 700억 원대의 횡령 사고도 아이유의 이미지를 앞세워 고객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하다. 손흥민을 얼굴로 내세운 메가MGC커피(메가커피)는 '대박'을 쳤다.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손흥민과 저가 커피 전문점의 대표 격인 메가커피의 만남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가커피 운영사인 엔하우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684억 원으로, 2022년 1748억 원에서 110.72% 뛰었다. 영업이익도 약 694억 원으로 2022년 약 310억 원보다 124.12% 늘었다. 손흥민의 화제성과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스타마케팅이 오

려 화가 된 경우도 있다. 제약사 경동제약은 최근 기존 모델 아이유에 방송인 텍스가 새로 합류한 진통제 '그날엔 텍스' 새 광고 영상을 선보였다. 자사 제품명이 텍스와 같고, 제품 효과처럼 강하고 빠른 텍스의 이미지가 부합하면서 신규 모델로 발탁한 것이다. 문제는 경동제약이 적자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62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1827억 원) 대비 200억 원가량 줄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83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도 회사는 광고비를 아끼지 않았고, 아이유는 지난해 전속 모델 계약 2년을 연장했다. 아이유는 연 모델료가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다. 과거 배우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 등 광고계로부터 '줄줄이 손절' 당했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배우 류준열과 '환승 열애' 의혹이 일었던 배우 한소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 광고 모델로 고운정을 선정한 바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스타마케팅은 기업 이미지에 스타의 화제성과 이미지를 덧입혀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할 수 있지만, 비용 대비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기대치에 부합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질, 차별화된 경험 제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기자 yxxj@

AI, 정말 인류 초월할까? ... '기술·인간 공생' 예술작품으로 만나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을 조망하는 전시 '예측(불)가능한 세계'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에서 개최된다.

25일 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을 조망하고 기술과 인간의 공생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청주관의 첫 미디어아트 기획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을 대체하거나 초월할 가능성까지 품고 있다. 이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들을 통해 생태, 창작, 진화,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날 기술의 의미를 고찰한다.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질문한다.

김아영, 슬릿스코프, 언메이크랩, 히토 슈타이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8월 25일까지
AI 소재 작품 통해 생태·창작·진화 고찰
국내외 작가 8명 참여... 비판적 시선 담아



김아영 작가의 '딜리버리 댄서의 구'.

사진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총 8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미래와 비미래', '생성과 비생성', '진화와 공진화', '궤도 댄스와 두 개의 눈'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미래와 비미래'에서는 인공지능의 예측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것의 본성을 살펴본다. 히토 슈타이엘(Hito Steyerl)의 '이것은 미래다' (2019)는 인공지능의 예측 알고리즘이 가지는 근시안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한다. 미래만 추측하고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인공지능 우둔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성과 비생성'은 창작 역할을 부여받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시각을 다룬다. 세 번째 '진화와 공진화'에서는 '진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칠 세계, 그리고 그 속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네 번째 섹션 '궤도 댄스와 두 개의 눈'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대두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명한다. 김아영의 '딜리버리 댄

서의 구' (2022)는 가상의 서울을 배경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여성 라이더 에른스트 모의 이야기를 다룬다. 작가는 배달 플랫폼과 알고리즘으로 인해 통제받는 라이더의 신체와 시간을 시각화하면서 오늘날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청주관 5층 기획전시실뿐만 아니라 옥외 전시 플랫폼인 '미디어 캔버스'에도 참여 작가의 영상 작품 5점을 상영한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에서 서로 연동되는 8개의 키워드와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둘러싼 오늘날의 이슈를 고찰해볼 수 있다"라며 "인공지능의 예측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의 이야기보다는 인공지능이란 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사유를 점검하고, 새로운 상상 위에서 기술과의 공생 방식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동시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열린다. 송석주 기자 ssp@

동해·매력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
봄빛 찬란하다

ENJOY ALL THAT SEOUL

SEOUL FESTA 2024

서울 페스타 2024

2024. 5. 1.(수)
~ 5. 6.(월)

📍 서울광장에서
K-POP 콘서트 직관

📍 광화문광장에서
서울 로드쇼 체험

📍 상암 노을공원에서
고기굽 굽 피크닉

📍 힙한 명동
페스티벌까지!

※ 장소별 프로그램 기간 및 세부정보는 QR코드 확인



seoulfesta.com

신라금관·달항아리… 국보급 유물 ‘지역 박물관 나들이’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농경문청동기, 신라의 화려한 금관, 순백의 달항아리 등 교과서에 나오는 국보급 문화유산이 지역의 박물관을 찾아가는다.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역 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전시를 열어 중요 문화유산을 모든 국민과 함께 향유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날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각 개최지의 지자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협약 체결과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윤 관장은 “국립박물관과 전국 12개 개최지의 약 60명에 이르는 학예직과 관계자가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함께 한다’라며 “지역의 문화 인력과 함께 전시를 만들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빈틈없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 없는 문화향유권 보장과 긍정적인 문화누림을 위해 함께하는 전시의

청동기부터 고려시대 유물 선배 당진·남원·해남·고령·양구 등 12곳서 6월부터 6개월간 전시 “지역문화 활성화 위한 첫걸음”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12개 개최지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충남 당진), 석탄박물관(충남 보령), 합천박물관(경남 합천), 상주박물관(경북 상주), 고려청자박물관(전남 강진), 김병종미술관(전북 남원), 민속체험박물관(충북 증평), 장수역사전시관(전북 장수), 대가야박물관(경북 고령), 공룡박물관(전남 해남), 함안박물관(경남 함안), 백자박물관(강원 양구) 등이다.

주요 전시대상품은 농경문청동기, 금관총 금관, 금령총 금관, 기마인물형토기, 상감청자, 달항아리 등이다. 6월부터 12월까지 총 2회차에 걸쳐 12개 지역 국립박물관에서 차례대로 소개된다.

농경사회와 이를 다스리는 지배자의 모습, 이전 시기와 다른 청동기시대의 모습



1 금관총 금관 2 농경문청동기 3 기마인물형토기

이다. 지배자의 무덤에는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이 많았는데, 농경문청동기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밭을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또 이 시기부터 인간이 자연 재료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터득했음을 알 수 있다.

왕과 왕족이 묻힌 무덤에는 금관과 금



사진제공 국립중앙박물관

허리띠, 각종 금 장신구들이 함께 묻히기 시작했다. 금동, 은, 구리로 만든 장신구도 무덤에서 발견되지만, 금으로 만든 장신구는 오직 왕과 왕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특히 금관은 신라의 전성기였던 5~6세기 왕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마인물형토기 역시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이처럼 형상을 본떠 만든 토기를 상형토기라고 한다. 상형토기는 무덤 주인의 생전 영광과 지위를 대변한다.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상형토기가 출토된 무덤은 대체로 큰 편이다. 함께 묻힌 물건들의 종류와 양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만든 것은 고려 초 10세기 무렵이다. 청자상감모란무늬항아리는 고려자기의 정수로 꼽힌다. 고려청자의 가장 큰 성과는 유약이 은은한 비취색을 띠는 비색(翡色)을 완성한 것과 도자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연 상감(象嵌) 기법을 개발한 것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려청자의 독창적인 특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자체 기획한 교육프로그램과 공연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행사”라며 “이번 출범식은 순회 전시 진행 계획 등을 공유하고 전시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박물관과 지역 문화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지역 문화 전반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남원 대북사 동종’ 보물 지정

문화재청은 25일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사진〉과 승려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북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조선 정조 2년) 김홍도가 그린 작품이다. 서원아집이란 역사상의 특정 인물과 관련된 일화들을 주제로 그린 그림인 고사인물도의 주종 중 하나다. 문인들이 차, 서화, 시 등을

나누는 모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버드나무를 비롯해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또 길운을 상징하는 사슴과 학을 그려 넣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또한, 김홍도의 34세 화풍을 살필 수 있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후 유행한 서원아집도 병풍의 새로운 모델을 제기한 작품으로서도 가치

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총 6쪽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수묵담채로 표현돼 있다.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 화해 재창조해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남원 대북사 동종’은 승려장인 정우가 1635년(조선 인조 13년) 제작했다. 처음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가 영원



사가 폐사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북사로 이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공예사적으로 가치

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남원 대북사 동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송석주 기자 ssp@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말 안하면 몰라, 그치?”... ‘같이의 가치’ 알아야 ‘진짜 어른’



창간 9주년 기념
설문조사

· 조사명: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조사(2024)
· 조사 대상: 전국 2030·5060세대 500명
· 조사 기간: 2024년 2월 29일~3월 4일
· 표본 오차: ±4.4%(신뢰수준 95%)
· 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고령화 가속화로 노인은 늘어났지만, 청년들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토로한다. 트렌드 분석 도서 ‘2024 트렌드 모니터’는 올해 동향 중 하나로 ‘어른의 부재’를 꼽았다.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월간지 창간 9주년을 맞아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 현대사회 어른의 시대상에 대해 살펴봤다. 아울러 2014년 진행된 동명의 조사 데이터를 통해 세대 간 존경 및 갈등에 대한 양상을 비교해봤다.

◇무책임한 어른은 존경하기 어려워
‘어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조사에 참여한 2030세대와 5060세대는 모두 ‘책임감(있는)’이라는 키워드를 1순위로 꼽았다(39.8%). 2030세대의 경우 ‘존경받는 어른의 덕목’을 묻는 항목에서도 3명 중 1명꼴(32.4%)로 ‘책임감’을 최우선 덕목으로 택했다. 질문을 바꿔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을 묻자 전 세대 평균 1위 답변은 ‘무책임함’(20.8%)이었다. 어른의 이미지나 덕목, 이상향 등이 ‘책임감’에 무게가 실린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다.

‘가까이 소통하고 대화할 존경하는 어른이 있다’고 말한 비율은 2030세대 72.4%, 5060세대 56.8%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만난 ‘존경할 만한 어른은 몇 명인가’라는 세부 질문에서도 전 세대의 과반수가 ‘3명 이하’라고 답했다(2030세대 68.4%, 5060세대 72.8%). 나이나 연륜이 많다고 해서 존경하는 어른을 많이 만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존경하는 어른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의 9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30세대 90.4%, 5060세대 93.6%)). ‘반반이다’라는 의견을 제외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9%로 매우 극소수였다.

◇세대 갈등 10년... ‘회피와 외면’으로 멀어졌다
세대 간 갈등은 더 심해졌다. 2014년 시행한 동명의 조사에서 참여자의 과반수(68.2%)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10년 후 조사

반응을 보였다. 더군다나 항목 중 ‘매우 존경한다’를 택한 5060세대는 아무도 없었다(0%). 한편 2024년 세부 조사 결과를 보면(2014년에는 5060세대만 진행) 2030세대 3명 중 1명 이상(37.6%)이 ‘5060세대를 존경한다’고 답했다. 즉 요즘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생각보다는 스스로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현시대의 5060세대가 다소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가정에서도 나타났다. 부모 세대는 40.6%가 ‘(자신을)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라고 답했다. 자녀 세대는 그보다 많은 66.8%가 ‘자신의 부모를 존경받을 만한 어른’으로 생각했다. 특히 ‘매우 그렇다’(매우 존경한다)를 택한 2030세대는 38%로 전체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민선 박사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꼰대’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경향이다. 반면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로하는 분위기다. 젊은 세대가 처한 어려움도 크지만, 계속되는 사회의 냉대 속에서 기성세대는 갈 곳을 잃고 의기소침해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회에서의 위축감이 가정으로도 이어졌다고 본다. 가령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 흡수제’ 이야기도 젊은 세대는 가볍게 넘기기도 하지만, 부모 세대는 다르다. 자신의 과오나 책임으로 여기기도 하며, 가정에서도 위축을 느

신들이 문제로 여긴 관행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경제력’과 무관
안타깝게도 5060세대의 노력을 오늘날 2030세대는 잘 알지 못하는 눈치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본 항목에서 5060세대는 ‘소통을 위한 젊은 층 이해’(41.6%)를 비롯해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25.2%) 등을 한다고 응답했으나, 2030세대는 ‘잘 모르겠다’(31.6%)고 반응했다.

박민선 박사는 “과거에는 경제적인 능력도 하나의 권위와 존경의 덕목으로 인식되곤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지우면 어른 도리를 한 것이라 여기는 이도 많았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젊은 세대는 경제력만으로 존경심을 표하지는 않는다”며 “10년 전과 비교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양 세대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원한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고 희망적이라고 본다. 다만 세대 간 존중과 소통을 위해서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를 나누지 않고 공동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이지혜 기자 jyelee@·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나의 부모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
66.8%

2030세대,
내가 5060세대 되면 ‘이것’ 바꿀래

1위	자신의 가치관을 젊은층에게 주입하려는 행위	44.4
2위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관행	25.6
3위	학연·지연 끼리끼리 이익집단화	13.6

“2030, 저희는 말예요...”

90.4% “존경할 어른 필요”
세대갈등 “富 편중 때문” 급증
불통 이유 “가치관 강요” 1위
5060 노력엔 “잘 모르겠다”

에서도 대다수(79.8%)가 같은 의견을 냈다. 수치로는 11.6%p 상승했는데, 갈등 양상이 과거보다 더 고조됐음을 시사한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 간 갈등의 심각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어떤 ‘경각심’을 드러낸 결과로 보인다”며 “가령 노인혐오 표현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의 경각심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대 갈등 요인에 대해 오늘날 기성세대의 42%는 ‘가치관이나 취향의 차이’가 세대갈등을 일으킨다고 봤다. 10년 전(24.4%)과 비교해 수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다. 2030세대의 결과에서 이전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부분은 ‘부나 기득권의 편중’을 택한 비율이다. 2014년에는 6%에 머물렀는데, 2024년 13.2%에 이르며 10년 전 수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역으로 5060세대는 7.4%에서 5.2%로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위축된 5060, 사회적 평가 높여야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5060세대. 그들은 스스로 2030세대에게 존경받는다고 느낄까? 이러한 물음에 2014년에는 5060세대의 41.6%가 ‘존경한다’고 인정했는데, 2024년에는 24.4%만이 동일한

“5060, 우리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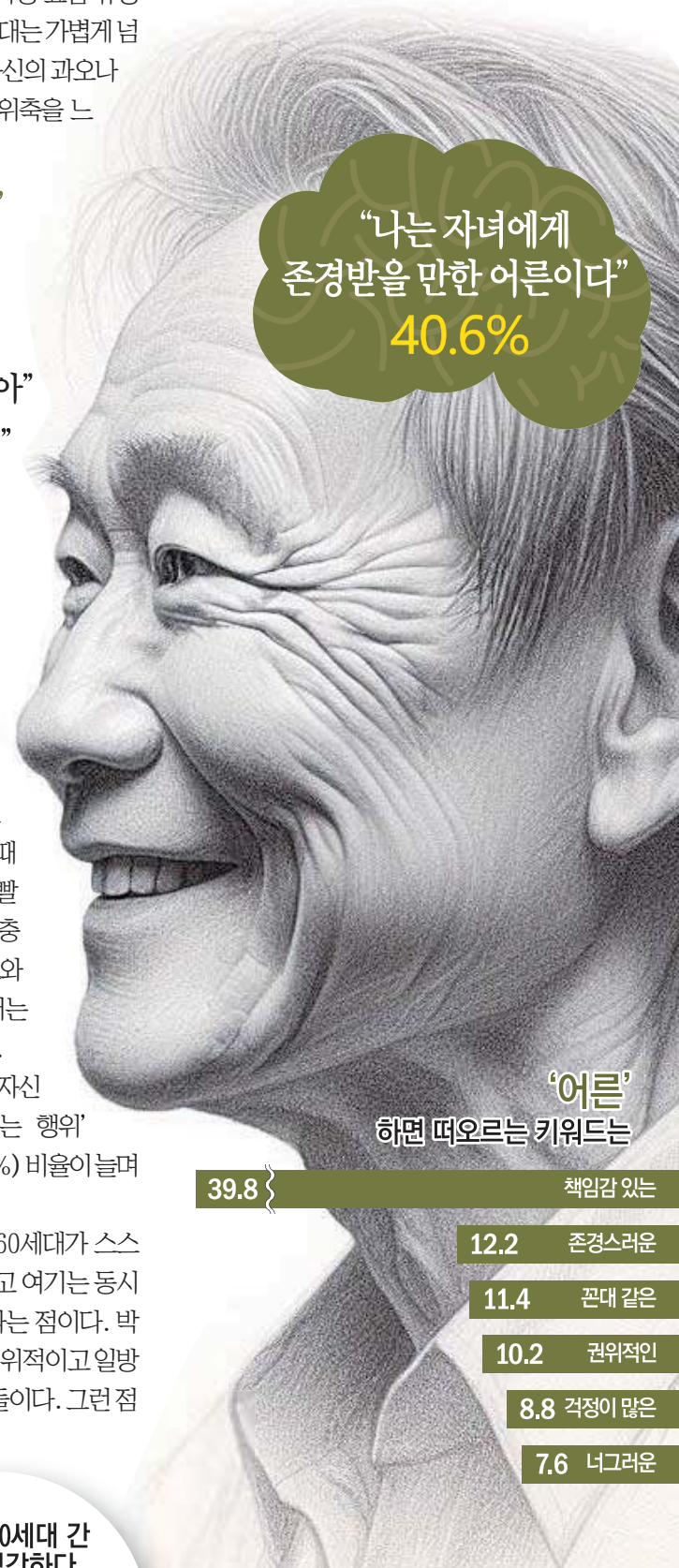
79.8% “세대갈등 심각해”
“존경받지 못한다” 의기소침
흡수제 이야기에 “내 잘못 같아”
“2030과 소통·이해하려 노력”

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행 극복 기성세대, 불통 여전
그렇다면 5060세대의 평가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2014년(36.8%)과 2024(52.2%)년 동일하게 ‘젊은 층 이해 노력 부족과 소통 부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 요인으로는 두 해 모두 ‘과거 관행 극복 실패’가 꼽혔다. 한때 기성세대가 스스로 관행으로 여겼던 ‘빨리빨리문화’(19.4%→2.8%), ‘대충대충하는 것’(12.8%→0.4%), ‘리베이트와 급행료’(28.7%→2.8%) 등에 대해서는 수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반면 위3가지 항목보다 후순위였던 ‘자신의 가치관을 젊은 층에게 주입하려는 행위’(10.1%)에 대해서는 4.5배가량(45.2%) 비율이 늘며 전체 항목 중 1순위로 올라섰다.

그런 속에서도 고무적인 부분은 5060세대가 스스로 이전의 악습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여기는 동시에,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이다. 박민선 박사는 “지금의 5060세대는 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윗세대를 경험한 분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소통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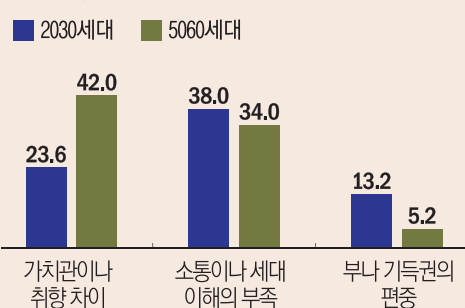


“나는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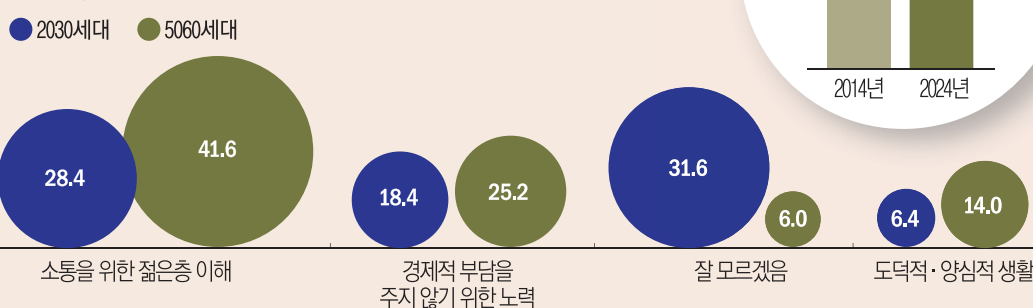
‘어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39.8	책임감 있는
12.2	존경스러운
11.4	꼰대 같은
10.2	권위적인
8.8	걱정이 많은
7.6	너그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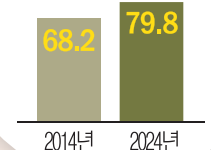
2030세대와 5060세대 간 갈등은 ‘이것’ 때문
(단위: %,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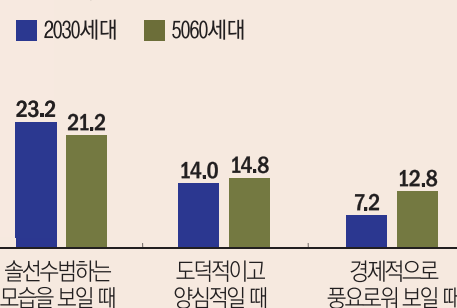
2030세대에게 존경받기 위해 5060세대 ‘이런’ 노력해
(단위: %, 2024년 기준)



2030·5060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
(단위: %)



‘이럴때’ 5060세대 존경스러워
(단위: %, 2024년 기준)



hy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국내 1등 ‘기능성 발효유’ 월, 손흥민 모델로 내달 신규광고

hy(옛 한국야쿠르트)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월)’ 브랜드 모델로 축구스타 손흥민을 발탁했다. hy는 “국내 기능성 발효유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월의 정체성과 한국 축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진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hy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 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을 방침이다.

2000년 출시한 월은 위 건강 기능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hy의 대표 상품이다. 일 판매량 70만 개, 연간 매출액은 3300억 원에 달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돌파했다. hy는 자체 연구 기술력을 활용해 출

시 이후 24년 동안 10회에 걸쳐 제품을 개선했다. 핵심 소재인 유산균의 경우 hy 자체 개발 특허 유산균 ‘HP7’을 적용 중이다. HP7은 hy 중앙 연구소에서 분리한 800여종의 유산균 중 헬리코박터균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hy는 최근엔 저당 설계로 당을 70% 이상 줄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당밸런스’를 출시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도 2300mg 함유했다. hy가 자체 개발한 특허 소재 ‘꾸지뽕잎추출물’은 기존 제품 대비 6.3mg 더 담았다. 꾸지뽕잎추출물은 위 불편감 개선에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개별인정형 원료다.

hy는 이번 신제품 출시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저지방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 당밸런스 등 3종의 월 라인업을 구축했다. 손흥민과 함께한 신규 광고는 5월 초 선보인다. 광고 콘셉트는 ‘NO.1의 만남’이다. hy의 월이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손흥민과 함께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역동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김일근 hy 유제품CM 팀장은 “글로벌 축구스타인 손흥민과 시너지를 통해 월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설록 골든픽 해차

‘서성한 회장 탄생 100년’ 한정판 해차

오설록이 올해의 골든픽 해차를 ‘아모레퍼시픽 서성한 100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매년 봄 차나무의 새싹을 채엽해 한정 수량만을 생산하는 해차는 채엽 직후 보관기간 없이 가공해 신선함은 물론 봄철에만 즐길 수 있어 특별하다.

오설록은 4월부터 돌송이 차밭을 비롯한 제주 각지의 오설록 차밭에서 해차 수확을 시작하고,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한 선대회장 탄생 100년을 기념한 일로향과 우전, 세작 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다. 오설록은 2020년부터 해차 제품에 ‘황금빛 차밭에서 손으로 딴’ 의미의 ‘골든 픽(Golden Pick)’ 엠블럼을 표시하고 있다. 올해 골든픽은 제주의 충분한 봄비로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은 차나무와 큰 일교차로 그 풍미와 맛이 더욱 깊다.

오설록 직영몰에서 이번 달 사전예약을 시작한 일로향과 우전 해차는 뜨거운 반응으로 조기 품절을 기록하며, 현재는 추가 생산을 통해 일로향 제품을 소량 판매하고 있다. 세작 해차는 5월 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오설록은 장원(莊源) 서성한 선대회장의 차 문화를 향한 집념과 도전 정신을 되새기는 ‘잘 가꾸고 다



듬은 근원 | 아름다운 집념, 장원’ 전시를 제주 티뮤지엄에서 12월까지 진행한다. 티뮤지엄 내 전시존과 비치된 아키이빙북에는 1979년부터 한국 차 문화를 재창조하고 녹차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장원의 사진과 어록 등을 담았다. 식물을 사랑한 선구자이며 시대의 개척자로서 보여준 장원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함께 국내 차 문화를 선도하는 오설록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동서식품 카누 원두커피

라이트·미디엄·다크 3가지 로스팅

동서식품은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카누(KANU) 원두커피’를 총 6종(홀빈 3종·분쇄 원두 3종)으로 출시했다.

카누 원두커피는 ‘풍부한 첫 느낌(FIRST BOLD)’, ‘깔끔한 여운(LAST CLEAN)’이라는 콘셉트로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하고 진한 풍미와 목 넘김 후에 느껴지는 깔끔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하고 각 원두마다 최적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적용해 고유의 풍미와 개성을 극대화했다.

카누 원두커피는 △카누 실키 베이지 △카누 크림미 버건디 △카누 벨벳 블랙 등 3가지 맛을 각각 분쇄 원두(Ground Coffee)와 홀빈(Whole Bean: 분쇄하지 않은 원두) 2가지 타입으로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제품 타입에 따라 에스프레소 방식이나 핸드드립, 콜드브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카누 실키 베이지는 원두를 가볍게 로스팅해 과일류에서 느껴지는 산미가 특징이다. 카누 크림미 버건디는 미디엄 로스트 원두로 견과류의 진하고 고소한 풍미와 적당한 산미를 느낄 수 있고, 카누 벨벳



블랙은 다크 로스트 원두의 묵직한 무게감, 스모키한 향과 달콤쌉싸름한 풍미가 장점이다. 동서식품은 최근 대용량 신제품 ‘카누 원두커피 카페 블렌드 다크 로스팅’ (1.13kg)도 론칭하고 전국 코스트코 매장에 입점했다. 카누 카페 블렌드 다크 로스팅은 홀빈 타입으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대용량 원두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출시한 제품이다.

유니베라 알로에바이오틱스

장 건강 지키는 ‘알로에 유래 유산균’

유니베라의 ‘알로에바이오틱스’는 국내 최초로 특허 알로에 유래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이다. 알로에바이오틱스는 유니베라가 독자 개발한 특허 알로에 유래 프로바이오틱스 UAB10(유에이비 텐) 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1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다. UAB10은 독자 개발한 독점 특허균주로 우수한 생존력과 장부착능 및 항생제 내성 안정성과 관련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저널에서 인정 받은 균주다.

세계적인 유산균 기업 DANISCO, ProBioFerm의 장 건강에 특화된 11종의 균주가 균형 있게 배합됐다. 장은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부분에서 주로 서식하는 균이 다른데 알로에바이오틱스는 이들 유산균을 모두 함유했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인 자일로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아카시아 식이섬유 3종을 세심하게 배합했고, 알로에 유래 파라바이오틱스 UAPB1까지 부원료로 들어가 있다.

또, 유니베라는 유산균이 위산과 담즙을 견디고 살아남아 장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코팅 공



법에 알로에를 활용했다.

‘효소처리 알로에 베라를 포함하는 유산균 동결 건조 보호용 조성물’이라는 특허도 획득했다. 알로에 레이어가 포함된 4종 특허 보호막을 통해 위산, 담즙산, 온도, 습도에 구애받지 않고 유산균이 장까지 생생하게 살아 도착할 수 있도록 했고, 냉장 보관도 필요 없다.

알로에바이오틱스의 보장균수는 50억 CFU(보장균수)이며 합성향료, 이산화규소, 화학적 부형제(HPMC)를 첨가하지 않아 안전하다.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 생태복구 활동

민동산에 나무 심고 해양쓰레기 수거

하이트진로는 생태 환경의 복구·정화를 위해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올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더욱 확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숲 조성 활동’, 해양 쓰레기 절감을 위한 ‘반려해변 환경정화활동’, 습지 생태계 환경 지표종 보호를 위한 ‘두꺼비 로드킬 저감 캠페인’ 등의 환경 복구·정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환경 복구 활동의 일환인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은 하이트진로가 ‘아름다운가게’, ‘평화의 숲’ 등 사회적 단체와 공동으로 훼손된 산림을 숲으로 복원하는 활동이다.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2022년 협약을 맺고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협력사들과 함께 2022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축구장 1.5배 규모인 약 1.1헥타르(ha)에 1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선 2020년부터 5년째 반려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 중이다. 반려해변 사업은 해양 쓰레기 절감을 위해 특정 해변을 기업



이나 단체, 학교가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취지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환경 사업이다. 또 지난달 20일 제주시 조천읍 담머르 해안과 인근 해안도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했고, 연내 매 분기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반려해변 추가 입양도 검토하고 있다.

깨끗한 습지 만들기 활동인 두꺼비 로드킬 저감 캠페인을 통해선 △시민 대상 생태 교육 △생태 통로·도로 안전 요철 설치 △로드킬 저감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진행했다.

|오비맥주 미켈름 울트라|

美 대표 프리미엄 맥주, 한반도 상륙... 건강과 즐거움 '두 토끼' 잡는다

미국에서 최근 10여년간 연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 스포츠 경기이자, 매년 전 세계 평균 1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슈퍼볼'에서 축구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가 마시던 맥주를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다. 그 맥주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 '미켈름 울트라'로, 한국에서 오비맥주가 선보인다.

미켈름 울트라는 2002년 미국에서 출시한 저칼로리 프리미엄 맥주로 '제로 슈거', '저탄수화물' 등 라이트 맥주의 장점을 앞세워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켈름 울트라는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을 챙

기는 소비자들이 운동 후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살려 스포츠 마케팅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2022년에는 TSC 뉴욕 마라톤에서 미국 최초 여성 마라토너인 캐서린 스위처의 영상을 공개하며 주목받지 못하는 여성과 마라토너 선수들을 지지했다.

또 NBA 공식 후원사이자 F1, PGA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고 리오넬 메시와 손을 잡고 2024 CONMEBOL 코파 아메리카의 세계 맥주 공식 스폰서로 발탁됐다.

한국 상륙을 앞둔 시점에서는 세계 최정상 골퍼인 고진영 프로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

탁했다.

장장 163주 동안 세계 랭킹 최장 1위를 기록한 고진영 프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켈름 울트라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과도 닮아있다는 점에서도. 미켈름 울트라는 한국 시장에서 고진영 프로와 함께 '골프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미켈름 울트라는 헬스앤웰니스 트렌드가 중심인 국내 식음료 시장에서 미국 프리미엄 라이트 맥주의 위업을 살려 라이트 맥주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건강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미켈름 울트라의 한국 상륙이 더욱 기다려지는 대목이다.



|LG생활건강 더후 비접 자생 에센스|

손상된 피부 장벽 개선... 24시간 생기 유지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는 피부 노화완화 성분인 'NAD+'를 화장품에 구현한 고효능 안티에이징 솔루션 '비접 자생 에센스' 4세대를 출시했다.

비접 자생 에센스는 탁월한 노화 관리로 2009년 출시 이후 14년간 980만 병 이상 판매되며 더후를 대표하는 토탈 안티에이징 케어로 자리매김했다.

4세대 비접 자생 에센스는 피부 노화 완화 인자 NAD+로 개발한 'NAD파워(Power)24TM'를 넣은 고효능 안티에이징 솔루션으로 3년 만에 재탄생했다.

LG생활건강은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NAD+의 피부 투과력과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NAD Power24TM을 개발하고 4세대 비접 자생 에센스에 처음 적용했다. NAD Power24TM은 NAD+ 대비 피부 안정성은 5배, 피부 흡수율은



50% 강화됐다.

여기에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한방 성분 '윤설란'과 '감조'의 효능 성분을 황금 비율로 배합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였다.

4세대 비접 자생 에센스는 NAD Power 24TM을 10% 함유해 낮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하고, 밤에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는 '24시간 피부 장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접 자생 에센스는 특허 받은 제형인 '포스트잇 제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패키지는 더후와 비접의 헤리티지는 유지하되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리필 가능한 용기로 제작했다.

더후 관계자는 "젊음의 핵심 성분인 NAD+를 통해 밤낮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빈틈없는 '피부 자생 균형'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안녕! 판다 케이크|

판다 귀여운 모습, 케이크로 만나볼까

파리바게뜨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판다'를 비롯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 캐릭터 케이크를 선보인다.

'안녕! 판다케이크'는 귀여운 판다가 인사하는 입체 형태의 케이크로 판다의 귀여운 모습과 특유의 엉뚱한 행동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진한 초콜릿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촉촉한 초콜릿 시트를 크림으로 아이싱한 후, 코코넛 가루로 판다의 포근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케이크 박스에도 판다가 뒹구르르 굴러가는 모습의 전용 패키지를 적용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살렸다. 또 가정의 달 5월에는 귀여운 판다 스티커가 한정적으로 동봉된다.

파리바게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를 출시한다. 작년 큰 사랑을 받았던 파리바게뜨의 벨리곰 케이크를 더욱 감성적인 모습으로 리뉴얼한 △'벨리곰이 축하해! 케이크', 부드러운 시트에 상큼한 라즈베리 크림의 케이크로 봄을 맞아 뽀로로 친구들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소풍가는 귀여운 외관을 표현한 △'뽀로로와 소풍가요!',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로 뽀로로가 풍선



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외관을 표현한 △'뽀로로와 풍선여행!', 초콜릿, 바나나 크림이 발린 달콤한 케이크로 아기상어 가족들이 파티하는 모습을 표현한 △'상어가족과 파티파티' 등이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판다를 비롯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캐릭터 케이크를 선보이게 됐다"며 "새 캐릭터 케이크들은 귀여운 모습과 달콤한 맛으로 어린이날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행복의 순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미니맥스 랩의 눈 솔루션|

쓴맛 없애고 영양소 채우고... 아이 눈 피로 '씩'

학령기 아이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스마트폰' 문제다. 디지털 학습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을 무작정 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늘어나는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조금이나마 건강해질 방법은 없을까.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의 첫걸음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사용에 관한 약속을 미리 정해두고 잘 지키면 보상으로 조금씩 사용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다. 또 디지털기기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장시간 디지털기기 사용을 꾸짖기보다 함께 산책하고, 책을 읽고, 대화하는 등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본다.

스마트폰은 TV보다 화면이 작고 눈 바로 앞에서 사용하는 탓에 눈의 피로도를 크게 상승시킨다. 블루라이트가 정상적인 눈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어, 주기적으로 안과를 찾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눈에 좋은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최초 스마트폰 이용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을 마친 기능성 원료 차즈기추출물이 대표적이다. 해당 시험에서 차즈기추출물은 대조군 대비 눈 피로도



개선 지표인 조절근점과 폭주근점의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입증했다.

차즈기는 쓴맛이 강해서 원물 그대로 먹기보다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섭취하기를 권한다. 동아제약의 아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미니맥스 랩의 눈 솔루션은 차즈기추출물에 과일 농축액을 더해 풍부한 딸기맛, 블루베리 맛을 구현했다. 설탕이나 아스파탐, 수크랄로스를 사용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고, 탱글탱글한 스틱 젤리 제형이라 간식 대신 먹기에도 좋다.

|오뚜기 55주년 맞아 새 CF 공개|

카레에 담긴 가족愛, TV 속으로 풍당

오뚜기는 출시 55주년을 맞은 '오뚜기 카레' 신규 TV CF를 공개했다. 새로운 CF에는 카레에 담긴 가족 간 따뜻한 이야기를 소재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1969년 오뚜기 창립과 함께 생산된 최초 제품인 오뚜기 카레는 대한민국 대표 카레로 자리매김했으며, 오랫동안 많은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국내 최초의 분말 카레로 시작한 오뚜기 카레는 레토르트 형태의 '3분 카레' 등 꾸준한 연구개발과 제품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카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번 신규 TV CF는 그간 오뚜기가 레시피 및 추억의 음식 등 소비자 입맛과 생활에 맞춰 선보인 광고와 달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스토리로 따뜻한 가족애를 담았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친근함이 느껴지는 일반인 모델을 활용, '엄마의 카레', '아빠의 카레' 2가지 버전으로 제작했다.

엄마의 카레편은 늘 바쁜 딸의 끼니를 걱정하는 엄마가 딸 자취집에 방문해 손맛을 담은 카레를 요리해두며 딸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모습을 담았다.



아빠의 카레편은 아빠가 휴일 배달 음식에 익숙한 딸에게 카레를 정성껏 직접 요리하며 평소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딸을 응원하는 모습을 정감있게 그려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올해로 출시 55주년을 맞은 오뚜기 카레는 오랜 기간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속 가족 간 사랑을 담은 콘텐츠로 TV CF를 제작했다"며 "온 가족이 오뚜기 카레를 매개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인도로 달려간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증장기 성장 전략 점검하고
직원들과 타운홀미팅도 가져
“인도권역 꾸준히 좋은 성과”
‘고객 지향 철학’ 지론 강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인도를 방문해 증장기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23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시에 위치한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의 업무보고를 받고 양사 인도권역 임직원들과 증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타운홀 미팅은 정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정 회장이 해외에서 직접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현 현대차 사장, 김연수 인도 아중동대권역 부사장 등 경영진들과 400여명의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서두에서 지론인 ‘고객 지향 철학’을 강조하며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바로 고객이며,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타운홀미팅을 제안한 이유에



인도를 방문한 정의선(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3일(현지시간)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대해 “인도권역에서 매우 과감하고 대담하게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만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에서 인도권역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인도권역은 현대차그룹의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권역 중 하나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대란 등 수많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꾸준히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도에서 지속해서 시장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며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인도권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이 지난해 8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인도를 다시 방문한 것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

이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는 지난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이미 세계 3위의 자동차시장으로 성장했다. 2030년에는 승용차 시장만 500만 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2026년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인도 시장의 성장에 맞춰 증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내년 하반기 푸네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첸나이공장(82만4000대)과 푸네공장을 주축으로 100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기아까지 합쳐 약 1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 인도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선보인다. 올해 말 첸나이공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기차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아도 2025년부터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공급한다.

최근에는 양사가 인도 배터리 전문기업 인엑사이드에너지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용 전기차 모델에 현지 생산 배터리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KB손보 ‘프로보노 봉사단’ 출범



KB손해보험은 ‘KB 프로보노 봉사단’ 1기 발대식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구본욱(사진 앞줄 가운데)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프로보노 봉사단은 경제·금융, 자산관리, 법률,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참여해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봉사단 1기는 총 3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7개월간 KB손보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KB손해보험

롯데카드, 발달장애 아티스트 후원

롯데카드가 발달장애아티스트를 위한 ‘2024 스페셜 연말음악회’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일 진행된 전달식은 조좌진(사진 오른쪽)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이용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카드가 전달한 후원금은 5000만 원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주최로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리는 ‘2024 스페셜 연말음악회’의 개최,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정성원 기자 jsw@·사진제공 롯데카드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정보 △기계로봇항공과장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무연직선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 ◇부이사관 승진 △에너지정책과장 이경수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근오

◆특허청 ◇과장급 정보 △스마트제조심사팀장 한충희 △사물인터넷심사과장 황윤규

◆코인원 ◇최고제품책임자(CPO) 이윙규

부음

▲장갑경 씨 별세, 이경재(한화솔루션 고문)·정숙(한성대 명예교수) 씨 모친상, 윤영숙 씨 시모상, 정기범(주광진상 공부회장) 씨 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02-2227-7566

▲이면진 씨 별세, 정파열 씨 남편상, 이종혁(포틴스코리아 대표이사)·윤정(제이앤제이브로콜딩스 대표이사) 씨 부친상, 서혜원(두산매거진 부장) 씨 시부상, 홍성우(닥터조물주 비뇨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씨 장인상=25,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7일 오전 11시, 02-2290-9457

최재원 “전동화는 정해진 미래…경쟁력 단단히 갖춰야”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사진) SK온 수석부회장이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정해진 미래”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역량을 단단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SK온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온 관훈사옥에서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E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를 주제로 구성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했다. 최 수석부회장 발표와 질의응답, 경영현황 공유 등이 이어졌다. 구성원 100여 명이 현장 참석했다. 국내외에서 2000여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애초 예정된 2시간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서울 관훈사옥서 타운홀미팅
“전기차 캐즘, 위기이자 기회”

최 수석부회장은 “SK온은 출범 이후 매년 어려움을 극복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며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구성원과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자리를 직접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질문에 “수요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각국 환경정책 및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게 위기이자 좋은 기회”라며 “수요 회복 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구성원이 합심해 철저히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상장(IPO) 시점에 대해 “SK온 상장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는 우리가 얼마나 상장을 준비를 했는지, 거시 금융 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 연구개발, 생산 능력 등 제조업의 모든 역량이 중요하다”며 “어렵지만 우리는 한 마리 토끼가 아닌 최소 대여섯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



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상 제조업은 첫 5년은 손해가 나기 마련”이라고 전제한 최 수석부회장은 “SK온은 그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하는 극소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마무리했다.

이동욱 기자 toto@·사진제공 SK온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강사로

한국콜마는 중소·중견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인재교육 프로그램 ‘우보천리(牛步千里) 상생드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2박3일간 여주 아카데미에서 진행했다.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들에게 직장 생활, 역사와 인문학 등을 교육하는 한국콜마만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강사로 직접 나선 윤동한(사진) 한국콜마 회장은 ‘회사,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창업 초기부터 지켜온 경영 철학에 대해 강의했다.

김지영 기자 kjy42@·사진제공 한국콜마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지빌리티 방문 SMR 역량 직접 확인

첫 소형모듈원전(S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두산에너지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요하니스 대통령이 전날인 24일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요하니스 대통령을 비롯해 루미니타 오도베스쿠 외교부 장관, 세바스티안 이오안 부르두자 에너지부 장관, 코스민 기차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사장, 루마니아 SMR 사업 발주처인 델라니아아무자 로파워 사장 등 루마니아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들과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루마니아가 건설 추진하는 SMR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 일행은 창원 본사의 단조공장, 원자력 공장을 찾아 뉴스케



클라우스 요하니스(맨 오른쪽) 루마니아 대통령이 24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해 박지원(가운데)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과 함께 SMR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에너지빌리티

일파워 SMR 단조소재, SMR 제작 전용 설비 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젝트 일정을 점검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980년대부터 쌓아온 검증된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과 금속분말 열간등방압성형(PM-HIP), 전자빔융접 기술 등 SMR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하며 제작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문학의 쫓

중고등학교 시절 취미란에 독서라고 쓰면 독서는 생활이지 취미가 아니라고 면박을 주며 나무라던 선생님이 계셨다. 중학교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순원
소설가

지 않는다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실제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보면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책이 유통되는 현실도 그렇다. 얼마 전, 어떤 시인의 절판 시집을 꼭 구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절판 시집이니 중고서적을 통해 구입했는데, 배달되어 온 책은 20년쯤 전 그 시인이 첫 시집을 내며 스승 같은 선배 시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담아 사인하여 보낸 책이었다. 책을 받은 시인이 사인받은 시집을 중고 시장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 유족들이 그분이 남긴 엄청난 양의 책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사인한 지면도 뜯어내지 못하고 그냥 중고시장으로 내보낸 것 같았다.

나 역시 사는 집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매년 사거나 받는 책은 늘어나서 틈

그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마땅한 취미 활동도 없었다. 방과 후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고, 더러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는 몇 개 되지 않은 엘피판으로 같은 노래만 듣고 또 들었다. 수학여행 때도 그 위에 겨우 엘피판 하나 올라가는 크기의 ‘야전’ (야외전축)이라고 불리는 작은 전축 하나를 누가 가져오면 여행 중에도 숙소에서도 그것만 들었다.

전국 중소도시에는 별다른 전시회도 거의 없었다. 영화감상 같은 것도 취미로 삼기 어려웠다. 학생들은 성년 영화

중고시장에 나온 작가 사인본

를 볼 수 없었고,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영화도 학교에서 관람 허락이 떨어져야 볼 수 있었다. 또 매주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독서가 그야말로 많은 학생들에게 생활이자 취미였다. 그때라고 입시의 압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래도 손에 쏙는 세계 명작은 누구의 추천으로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곤 했다. 국내의 유명 장편소설과 단편소설도 많이 챙겨 읽었다. 그 시절 국내 작가들도 대부분 이름 말고 호를 쓰던 때여서 작가의 이름과 호를 맞추는 단답형 퀴즈 놀이도 즐겨 했다.

선생님이 권하는 세계 명작 소설이 좀 어려우면 책가방 가득 무협지를 넣어와서 자신도 읽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빌려주던 친구도 있었다.

돌아보니 그때는 책을 읽는 것 말고는 재미있는 일도 많지 않았고, 또 넘치고 남는 시간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독서밖에 없던 시절이기도 했다. 어떤 설문조사에 지금은 국민 60%가 아예 독서라는 걸 하

들이 서재를 정리한다. 이때 가장 조심스러운 것이 사인받은 책의 정리다. 그 면만 뜯어 따로 보관한다. 그래도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사인하여 보낸 책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것 역시 귀한 인연으로 진기하게 대하지만, 몇 번 꺾고 나니 내 책에 사인하는 일이 조심스러워졌다. 내가 사인하여 보낸 책이 내 손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

예전에는 책 제일 앞표지를 펼쳐 책을 보내드릴 분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그간의 인연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내 이름을 적어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나중에라도 그 책이 또 다른 형태로 판매되거나 돌아다닐 일을 생각해 다른 종이에 사인하여 그걸 속표지에 붙여 보낸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떼어내기 편하고 흔적 지우기가 편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 60%는 아예 독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은 넘쳐나고,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 가장 처치 곤란한 짐이 책이 되어버린 시대에 나온 저자 증정용 사인본이다.

했으나 관직을 구하러 떠나 유랑했다. 고을에 쳐들어온 외적 장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목을 매 자살했다. 고향에 돌아온 남편 조생이 아내의 시신을 찾아 어머니 무덤 옆에 장사지내고 매일 밤 통곡할 때 귀신으로 나타난 그녀가 한 말. ‘산에서 멋대로 자란 꿩과 따오기는 집안에서 길들이지 못하는 법이요, 길가의 버들담장에 핀 꽃을 누구든지 쉽게 꺾을 수 있는 법입니다[路柳牆花人皆可折].’

☆ 시사상식 / 빈데믹

‘빈대 (bedbug)’와 팬데믹의 합성 신조어.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빈대가 2023년 들어 재차 확산하면서 등장한 말이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몰 관련 소식이 이어지면서 빈대의 빠른 확산과 이에 대한 공포를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팬데믹에 비유했다. 여기다 빈대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뜻하는 ‘빈대 포비아’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슈&인물

가상자산 ‘유일’ 리서치센터 이끄는 최윤영 코빗 센터장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를 봐야”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은 지라시가 아닌, 진짜 리서치를 참고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도 적기에 빠르게, 하지만 깊이가 있는 좋은 리서치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은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 코빗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리서치센터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코빗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유일하게 리서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업계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면서 “센터의 발간물을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고했고, 다른 국내 리서치 업체들이 생겨나는 데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잔뼈 굵은 금융전문가 “가상자산 가치 확인하고파”= 올해 1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이 신고가(ATH)를 경신하며, 국내에선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서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리서치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1년부터 투자자와 기업에 다양한 관점의 리포트를 제공해 왔고, 2022년 센터에 합류한 최센터장은 이달 초 김민승 센터장과 함께 공동 센터장 체제를 구축해 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다.

최 센터장은 전통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상자산 시장에 접목하고 있다. 그는 미국 스미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시간주립대에서 금융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파인애플 전공으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코빗 입사 이전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및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서 근무했다.

최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와 시장의 매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상자산이 뭔지, 정말로 새로운 자산군인지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당시만 해도 현업 밖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서 “현업에 들어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시도들이 많고, 그 결과물이 초초인 경우도 많아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가장 뿌듯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에서 중개인이 없고, 대신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중개 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연결 비용이 제로가 되면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처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 센터장이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 코빗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빗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최 센터장 역시 “전반적인 상승장일 것으로 예상되며, 시총은 올해 안에 4.5조~5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성을 크게 봤다. 그는 “달러 결제가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작년만 해도 테더(USDT)를 중심으로 미국 외 달러 사용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

시장수요 부응…싱크탱크 역할강화
규제 이어 2단계법 ‘육성’에 초점을
중개비용 제로…거래혁명 가져올것

로 평가받았던 반감기의 영향력이 단독으로 크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반감기가 끝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태는 맞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많아서, 신규 공급량 감소의 영향력이 앞선 세 번의 반감기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법 추진시 업계와 의견교환 ‘기대’= 최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과 이어 제정될 예정인 업권법(2단계 법)의 진행과정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우려들,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2단계 법에 적용할 때는 산업 진흥과 국제적 규제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

서는 특금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가상자산 정의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법이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목표인 법’이었던 만큼, 2단계법에서는 ‘진흥을 초점으로 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영국의 규제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기술 발전과 규제 발전이 같이 간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제공 해 투자자 도움 것”= 감독 당국의 권한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업계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단계법 추진을 발표하며 제도를 국제적 수준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정치권 공약도 이전 대비 업계에 친화적으로 바뀐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은 향후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장 집중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 “특정 분야보다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빨리 결과물을 내되, 속도 대비 깊이 있는 리서치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깊이의 리서치를 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포부다. 이어 “투자자들은 특히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지라시보다 ‘진짜 리서치’를 참고해 시장과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이투데이, 말투데이

☆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명언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백골이 진토되어 낚아라도 있고 없고/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방원(李芳遠)의 ‘하여가(何如歌)’에 대해 “역성혁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답한 그의 시조 ‘단심가(丹心歌)’다. 고려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을 지낸 관료. 이성계(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알고 숙청할 기회를 엿보다 이를 눈치챈 방원의 부하에 의해 선죽교(善竹橋)에서 피살되었다. 오늘은 그가 암살당한 날. 1338~1392.

☆ 고사성어 / 노류장화(路柳牆花)

길가 버드나무와 담장에 핀 꽃이라는 뜻. 명(明)나라 구우(瞿佑)가 엮은 소설집 전등신화(剪燈新話) 애경전(愛卿傳)에 나온다. 절강성(浙江省)의 명기 나애애(羅愛愛)는 용모와 재력이 빼어나 모두 존경하고 사모했다. 그녀를 연모한 조생(趙生)이 아내로 맞이

그린에너지, 재성장 발판 삼아야

최근에너지산업의메가트렌드는그린에너지 시장의 확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가 3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세계 각국의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정책과 기술발전으로 인한 그린에너지의 경쟁력 향상에 기인한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그린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자국내 막대한 그린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신규 전력용량의 84%가 그린에너지였을 정도로 이 분야 투자가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산업을 선점하고자 유럽그린딜 등 의욕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IRA와 유사한 '탄소중립산업법'을 입법 중이다.

일본은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려고 작년 범정부 GX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20조 엔의 'GX 경제이행채'를 통한 투자지원 △생산단계의 세액공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이 핵심인데, 지난 1월 말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비화석에너지 비중 80% 이상과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그린 프로젝트에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태양광모듈 부문의 공급망 지배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그린에너지시장의 확대는 에너지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최근 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와 탄소중립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하락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해외 그린에너지 시장 확대를 재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논현로

권평오
前 KOTRA 사장



먼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해상 풍력의 경우 규제 완화 및 집적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취약한 실적(Track record)을 쌓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원전은 발주국가들이 원하는 방식-엔지니어링·운영·R&D의 공동수행-에 맞는 수주체제를 갖추고, SMR 상용화에 대비하여 글로벌 선두기업의 공급망에도 미리 참여해야 한다.

지역별 시장여건에 맞는 진출방안도 찾아야 한다. 작년 국내기업의 아부다비 태양광발전소 수주와 스웨덴 풍력발전소 건설 등의 사례가 좋은 해법을 보여준다.

즉, 조기에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해 기회를 포착한 후, 관련업계 공동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또 평상시에 현지 발주기관 및 업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에 사전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올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미국 그린에너지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이미 진출한 프로젝트들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프로젝트금융 시장 경색 등에 따른 비용상승 요인을 미리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예상치 못한 사업적자 위험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

'트렌드를 알면 비즈니스가 보인다'는 말처럼 트렌드는 성공적인 마케팅의 핵심 요소다. 국내 시장 포화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에너지산업이 최근의 글로벌 녹색전환 트렌드와 그린에너지 시장 확대를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때이다.

국내 시장 포화...녹색전환이 대세 기술발전·정책 힘입어 성장가속도 산업경쟁력 제고·수주체제 갖춰야

한 톨



우리마을 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23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반려견 순찰대 파니와 보호자 김고은 씨가 동네 순찰을 하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산책 활동과 방법 활동을 접목한 자율방범활동이다. 2022년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3년부터 25개 자치구로 규모를 늘려 운영되고 있다. 올해 활동하는 순찰대는 기존 참여 957팀과 새롭게 선발한 467팀 등 총 1424팀이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우리 동네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지역 순찰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를 상시 모집 제도로 바꿔 더 많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여성안심 귀갓길, 올바른 반려견 문화 캠페인 등 지역맞춤형 주제로 정기 합동 순찰도 펼칠 예정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연줄' 잡기에 나섰다. 일본의 아소 다로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 것이 좋은 예다. 자국 기업이 진출한 오 클라호마 등 공화당 성향 주들에서부터 네트워크를 다지는 독일과 같은 접근법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동맹국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 혹은 핵심 관료도 직접 나선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이 최근 트럼프와 만났다. 미국 기류에 민감한 우방국 입장에서선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측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바이든 측은 최근 자기 쪽을 '패싱'하고 공화당계 정치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트럼프를 만난 밀레이 측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줄' 잡기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다. 퀴니피악대가 1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측 지지율은 46%로 같았다. 이코노미스트가 14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률이다. 각국의 연줄 찾기 몰입 경쟁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대선 판도를 읽는 수읽기 싸움도 치열하다.

대한민국은 더욱 절박하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동북아 지정학과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트럼프는 1기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다. "난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혈맹 관계인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2기가 실현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방심은 금물이다.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 대중 수출액을 앞질렀다는 한국은행 통계도 있다. 트럼프 2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러잖아도 한국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 연간 수출액이 15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3국 관세 부과로 인한 중간재 수출 감소액은 47억~74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로이터는 한국이 '스텔스 모드'를 취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마도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시나리오와 기사회생의 대응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할 일이다.

ETF 수수료 경쟁 "이러다 공멸"

"국내 최저로 파격 보수 인하!" 지난주 한 자산운용사 유튜브에 게시된 광고 문구다. 미국 대표지수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자사 운용보수를 연 0.05%에서 0.0099%로 낮췄다는 내용이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1억 원을 투자해도 투자자는 수수료로 9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에 상장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 ETF 수수료가 더 낮을 정도다.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SSGA)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SPLG'의 수수료를 0.02%로 낮췄지만, 해당 ETF가 더 저렴한 셈이다.

평소 투자를 고려했던 투자자라면 즐거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가 발표된 날, 소식을 들은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러다 다 죽어요"라며 하소연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굳어진지는 한참됐다. 한쪽이 수수료 0.09%를 내걸면 다른 한쪽은 0.08%를 내거는 식이다. 낮아지는 수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운용사별 ETF의 개성은 사라져갔다. 비슷한 자산군과, 획일적인 운용 방식에 수수료만 다른 상품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게다가 자산운용사들은 수수료를 인하한 운용사에게 투자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더라도 수수료를 인하해야 했다. 그렇게 투자자를 뺏기면 수익이 줄까 봐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면 또다시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실제 지난해 수많은 ETF가 상장했음에도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전년보다 2% 넘게 준 것이 이를 방증한다.

노트북 너머

손민지
자본시장부 기자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근심이 더욱 깊어졌다. "돈 없어서 서럽다"는 반응으로, 수수료 경쟁에 쉽게 뛰어들 실정도 안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매에서 돈 많은 사람이 아무도 올라설 수 없는 값을 외쳐버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간다"며 "경매라면 출혈 경쟁이 당연하지만, 우리 업계에서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했다. 상품 개발 비용으로도 뼈대한 이들에게 수수료 인하 경쟁은 눈 뜨고 볼 구경하는 격이다.

수수료 인하 전쟁이 격화할수록 대형 자산운용사에 점유율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자명하다. 또 보수 인하에 초점이 맞춰지면 독창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운용 전략을 개발하는 게 뒷전이 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자에게도 그리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물론 인하에 인하를 반복하는 이 경쟁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른다. 대형 운용사들이 시장에 맞게 자본력을 투입해 투자자 혜택을 늘린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는 파국의 서막이 되진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handmin@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석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

신한이 모든 순간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재생PC기부, 디지털금융교육
손주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쉽네~



한부모 취업 지원
엄마 사랑해! 우리 가족 화이팅!



신한 아름인도서관
언니랑 책 읽으니까 진짜 행복해~



위기가정 재기지원
여보~ 희망이 보여요!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그룹은 사회공헌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동부터 청년, 성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눔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행복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